

평신도



위의 앱은 모두 무료이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구별, 단체별 앱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 인 사 인사말
- 소 식 행사 일정
- 특 집 우리를 위하여 밥이 되신 분, 김수환 추기경 ... '작은 김수환 운동'
- 만 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 눔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탐 방 서소문 성지 서울 순례길 1코스
- 순 례 성지순례 김대건 · 최양업 유학로
- 이야기 서울 미바회 주보성인과 나
- 배 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소 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2019년 가을
계간 65호

평신도

CONTENTS

- 02 인사말 / 조성풍 신부
- 04 9~12월 행사 일정 / 염지유
- 08 우리를 위하여 밥이 되신 분,
김수환 추기경 ... '작은 김수환 운동' / 박승찬
- 16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 22 평신도가 된다 / 김주완
- 26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 29 나의 신앙 선조 / 백훈
- 32 서소문 성지 / 김병호
- 37 서울 순례길 1코스 / 김영숙
- 40 성지 순례 / 김원창
- 44 김대건 · 최양업 유학로 / 김창환
- 49 서울 미바회 / 최태교
- 52 후보성인과 나 / 김형수
- 54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조진희
- 58 평신도 양서 / 김선동
- 60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문태 힐라리오,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밀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김해성 글라라 작, 48×34cm, 목판에 에그
 템페라)
작품설명 - 우리나라의 주보이신 성모님
 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며 예수님
 께서는 무궁화로 표현된 한국교회와 명
 동대성당을 축복하고 계신다. 한반도 평
 화를 위하여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끊임
 없이 기도하시는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
 과 문장이 그려져 있다.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말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삶 안에서 어떠한 결실을, 얼마만큼 맺을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이 설레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 흘린 땀과 앞으로 남은 날들에 들이게 될 정성에 비례해 그 결실이 더욱 풍성해지겠지요.

저 역시 여러 가지 구슬땀을 흘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라는 교구장의 사목 목표에 따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복음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나눔으로, 우선 공동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교황 프란치스코의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상본을 제작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대화와 기도와 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가족 행복 교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들의 소감은 제게 잔잔하지만 긴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역시 교구장의 뜻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어머니 학교’를 새롭게 선보여 참가한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소소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스레 준비하고 나누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의 ‘618차 탈출기 연수’에 동반하면서 여름 내내 또 하나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여러 차례 창세기 연수에 동반하였지만, 탈출기 연수 동반은 처음이라 강의를 비롯한 갖가지 연수 준비와 3박 4일간의 일정이 제게는 새로운 구슬땀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성서 연수는 이번에도 저에게 많은 체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탈출기 전체를 몇 번씩 되풀이해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대목 한 대목마다 때로는 모세가 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만나고, 나누는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나누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요,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라고 밝히십니다. 연수를 준비하면서 접한 헬렌 말리코트(Helen Mallicoat)의 시는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잘 전해 줍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I Am)이다.”
주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네가 과거 속에서 살아갈 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었던 자로서이다’ (I Was)가 아니다.

네가 미래 속에서 살아갈 때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을 자로서이다’ (I Will Be)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별로 힘들지 않다.
나는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나는 있는 자로서이다’ (I Am)이기 때문이다.

『광야에 선 인간』, 70~72쪽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따르기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듯 보이는 세상살이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시는 하느님’은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선교에 관한] 교황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 반포 100주년을 맞아 2019년 10월을 ‘특별 선교의 달’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직접 체험하는 ‘복음화되는 삶’과 그 삶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여 ‘복음화하는 삶’을 권고하십니다. 시대적 상황의 표징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두 분 교황의 뜻을 이어받아, 무엇보다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선교사’입니다. 



교구평협 및 회원단체 9~12월 행사 일정



교구평협 행사 일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후반기 연수회
 - 일시 : 9월 20일(금)~21일(토)
 - 장소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문의 : 02-757-7851
- ▶ 추계 상임위원회
 - 일시 : 11월 1일(금)~2일(토)
 - 장소 : 수원교구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 문의 : 02-757-7851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 과정>
 - 일시 : 9월 2일(월)~11월 25일(월)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 02-777-2013



소식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추모 전시회

- 일시 : 9월 4일(목)~9일(월)
- 장소 : 명동성당 갤러리 1898
- 문의 : 02-777-2013

▶ 2019년 평신도사도직연구소 공개 세미나

- 주제 :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최현순 박사)
- 일시 : 10월 19일(토) 14~18시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 02-777-2013

▶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명도학당 2학기 개강
 - 일시 : 9월 9일(월)
 - 장소 : 춘천 가톨릭회관

▶ 제11회 38선 티모테오 길 도보순례

- 일시 : 10월 9일(수)
- 장소 : 양양성당 출발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특별전교의 달 행사 및 인천평협 40주년 기념 미사
 - 일시 : 10월 19일(토) 10시
 - 장소 : 인천교구청 내 성모당
 - 문의 : 031-246-3660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수원교구 평협 5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
 - 일시 : 10월 12일(토)
 - 장소 : 정자동주교좌성당
 - 문의 : 031-246-3660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원주교구 평신도회년 신앙대회 겸 폐막미사
 - 일시 : 11월 9일(토) 14~18시
 - 장소 : 진광중고등학교 다니엘관
 - 문의 : 010-7108-2068(원주평협 사무국장)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교구 도보성지순례
 - 일시 : 9월 21일(토)
 - 장소 : 진목정 성지
 - 문의 : 053-250-3057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진해 웅천왜성 산상미사
 - 일시 : 10월 26일(토) 11~13시
 - 장소 : 진해 웅천왜성
 - 문의 : 055-249-7114

▶ 유섬이 순례길 순례

- 일시 : 10월 중
- 장소 : 본당 릴레이 순례
- 문의 : 055-249-7114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4차 상임위원회 및 교구장 평협 방문
 - 일시 : 9월 7일(토)
 - 장소 : 안동교구청 대회의실
-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수)
 - 장소 : 안동게이트볼구장



▶ 평협 총회

- 일시 : 11월 30일(토)
- 장소 : 안동교구청 대회의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 일시 : 9월 28일(토) 10~16시
- 장소 : 담양 일원
- 참가대상 : 1,000여 명
(교구장, 사제, 수도자, 평신도)
- 순례코스 : 담양성당 → 천주교공원묘원(담양 월산면)
- 문의 : 062-236-3004

▶ 평신도의 날

- 일시 : 11월 9일(토)
- 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 내용 : 평신도 사도직 단체 세미나
- 문의 : 062-236-3004

▶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

- 일시 : 12월 13일(금)~14일(토)
- 장소 :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 문의 : 062-236-3004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단협 해외빈민돕기 후원 일일호프

- 일시 : 10월 12일(토)
- 장소 : 팽벌회관
- 문의 : 010-2646-0675(전주 평단협 사무국장)

▶ 임원 4차 워크숍

- 일시 : 10월 26일(토)
- 장소 : 전주교구청

회원단체 행사 일정

▶ 꾸르실료한국협의회

▶ 제18차 전국 울뜨레아

- 일시 : 10월 3일(목) 10~15시
- 장소 :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
- 문의 : 055-388-5734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피정

- 일시 : 11월 8일(금)~9일(토)
- 장소 : 부산 양산 영성의 집
- 문의 : 02-755-7060

▶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제172차 레지오 교육

- 일시 : 10월 19일(토)~20일(일)
- 장소 : 한티 피정의 집
- 문의 : 053-256-3574

▶ 세나투스 평의회 총회

- 일시 : 11월 24일(일)
- 장소 : 대구대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 문의 : 053-256-3574

▶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협의회

▶ 전국대표자회의

- 일시 : 11월 16일(토)~17일(일)
- 장소 : 노량진 노동청년회 본부
- 문의 : 010-3751-7442(남명수 전국회장)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제37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 일시 : 11월 22일(금)~23일(토)
- 장소 : 한남동 쏘네투알 피정의 집
- 주관 : 02-451-0333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전국 피정 및 협회 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9월 21일(토)~22일(일)
- 장소 :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 문의 : 02-2258-7422

▶ 한국가톨릭간호수도자 연수

- 일시 : 11월 14일(목)~16일(토)
- 장소 : 미정
- 문의 : 02-2258-7422

▶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

▶ 국제 세나클

- 일시 : 9월 1일(일)~14일(토)
- 장소 : 로마 카노시안 수녀회 바키타 하우스
- 문의 : 010-8807-7182(전국총무 김기환)

▶ 한국가톨릭군종후원회

▶ 신임 군종사제 연수 및 군인 신학생 피정 위문

- 일시 : 9월 17일(화)~19일(목)
- 장소 : 의정부 한마음수련원
- 문의 : 02-727-2404

▶ 군인주일 회원모집 워크숍

- 일시 : 9월 23일(월)
- 장소 : 군종교구청
- 문의 : 02-727-2404

▶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보에게 길을 묻다

우리를 위하여 밥이 되신 분, 김수환 추기경 ... '작은 김수환 운동'

박승찬 교수 /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



우리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던 10년 전 명동성당을 에워쌌던 그 길고 긴 추모 행렬을 기억하고 있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당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문객들은 명동성당 입구를 지나 가톨릭회관 옆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만들었다.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몇 시간을 기다려 명동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던 조문객들이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다. 그 뜨거웠던 추모 열기는 내·외신을 통해 온 세상에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김 추기경의 선종에 대해 그토록 애도했던 것일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란 위상이 작용한 것 같지만, 그것만이라면 다른 분들도 그 정도의 추모를 받았을 것이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컸다. 예를 들어, 1987년 시위를 마친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해 들어왔을 때 정부 책임자에게 '나를 밟고 가

라'고 한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큰 인상을 줬던 것 같다. 그렇지만 민주화를 위한 기여 이상의 매력을 김 추기경은 가지셨던 것 같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동성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을 부탁 받으셨을 때, 자화상을 그리신 것도 독특한데, 다 그리시고 나서는 '바보야'라고 쓰셨다. 하도 이상해서 "왜 바보야, 라고 쓰셨나요?" 하고 질문하자 김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 제가 잘났으면 뭐 그리 잘났고 크면 얼마나 크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길 바라는 게 바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이런 '바보'가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했고, 아직도 그를 못 잊어 하는 것일까? 우선 그의 가르침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인간 존중과 진정한 평화에 대한 가르침

김수환 추기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 전집』에는 '인간', '사람'이란 단어가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도 물론 인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인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아리스토텔레스)나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율성과 인격성에서 찾는 칸트의 사상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입장을 '지성의 능력을 잃은 바보나 식물인간은 존엄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김 추기경이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무수한 연설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거룩한 사랑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추기경은 필요할 때면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신비라고 표현하면서 '인격'(persona)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한다. 바로 이러한 설명에는 그리스도교와 고대 그리스 철학이 만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성찰이 자리잡고 있다. 보에티우스(Boethius, 480-524/5)는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개별적인 실체'라는 표현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인간들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추기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각 개인이 구원받아야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김 추기경은 우리 인간 사회가 내버린 사형수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과만 존엄하다면,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이 바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파키스탄인 사형수들과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이도행 씨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

김 추기경은 각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해야 함을 일깨운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김 추기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교황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를 소개하며 공권력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물질에만 기울어지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가치를 포함한 전 인간적 완성에 봉사함으



▲ 미사 강론 장면



▲ 자화상 바보야



▲ 민주화운동(7.4 남북 공동 성명과 8.3 긴급 조치에 대한 메시지 발표(CCK, 1972.8.9)

로써 ‘공동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동선은 개인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각 개인의 완성에 기여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정의와 평화’이다. 그는 특히 ‘평화’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해 준다. 김 추기경은 우선 참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평화, 물리적 힘(무력이나 재화)으로 얻고 지키려는 평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그는 실제로 많은 현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태도를 유일한 평화 유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신중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김 추기경은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폭발력이 이미 인류를 몇십 차례 절멸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의 균형, 경쟁을 통한 평화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가 ‘전쟁이 없는 상태나 조용한 사회’를 참 평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참된 평화’ 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참된 평화’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힘과 힘의 불안스러운 균형으로 전쟁을 피하기만 하는 그 상태가 평화일 수는 없다. 참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요, 더욱더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항구한 노력으로써 얻어지는 질서인 것이다.”

김 추기경이 스스로 밝히듯이 이러한 성찰에 대한 영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얻었다. 그런데 그는 정의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의의 구현이 필수 조건이지만, 정의는 냉혹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만으로는 참된 평화는 이룩되지 못한다.”

따라서 김 추기경은 「사목헌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의 위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차원 높은 인간관계는 단지 정의에 입각하여 서로 해치지 않고 상호존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까지도 감내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 추기경은 인간 존엄을 위협하는 탄압과 폭력에 맞서 투쟁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나 마더 테레사와 같이 자신이 존경했던 멘토들의 모범에 따라 비폭력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추기경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참아 받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 스스로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샀지만 놀라울 정도

의 인내로 참고 기다림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어떤 기자가 “얼마 전 [...] 후배 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도 추기경께서는 시대에 뒤진 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라고 묻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비판을 한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지적은 저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너무 칭찬 말씀만 듣고 살아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는가’ 하고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고 대답했다.

김 추기경은 또한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인 평화보다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해야 하는 현실적 평화, 일상생활 속의 평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참된 평화를 ‘마음의 평화’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종종 ‘생활 속의 평화’라고 부른다.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그 나눔의 발자취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이들의 인간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사랑받고 대접을 받을 때 그 사회와 세상 자체가 정녕 인간다운 인간의 사회와 세상이 될 수 있고,



▲ 마더 테레사와 김 추기경



▲ 상계동 철거민들과의 성탄 미사(1986.12.24)

또한 거기에 인류의 구원과 참 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애에만 머물지 않고 남을 사랑할 때에 남을 향해서 자신을 열 때에 참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남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폐쇄된 사람이요, 폐쇄된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이상스럽게 자신을 사랑으로 남김없이 주면 줄수록 스스로도 풍요해집니다.”

김 추기경 스스로 교회의 주요 축일 때가 되면 항상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했다. 철거촌에 가서 집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던 추기경, 가난하고 약한 이들, 심지어는 집창촌에까지 찾아가 종사자들을 만나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 했던 것이다. 교회의 명절 때마다 자신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회적 약자와 빈민들을 선택했던 추기경의 모습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회교리의 중요한 가르침을 몸으로 가르쳐 주는 교과서였다. 김 추기경은 노동자를 옹호하는 교회의 활동을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 규정한다.

김 추기경은 가난한 이에 대한 인권 침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강도를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냥 지나가는 사제나 레위인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그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은 오랜 원의와 그렇지 못한 격차에서 오는 회한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용산 ‘막달레나의 집’이라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방문했던 일화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고위 성직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김 추기경은 단순히 우월감에서 베푸는 것을 자선과 나눔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자기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명동대성당 같이 거룩한 곳에 상계동 철거민들의 천막들이 세워져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성당 마당을 점거한 이들을 방치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비판할 때, 김 추기경은 성목요일 예절 때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묵묵히 견뎌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그의 지원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 추기경은 필리핀인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1992년 명동에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고, 1996년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다녀간 후 바로 명동성당에서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를 열었다. 이것이 해화동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로 연결되었고 라파엘 클리닉으로까지 발전했다.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에게 독재에 대한 저항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는 이미 독일 유학 시절 마지막에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소집된 공의회 개막 미사를 체험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더욱이 가톨릭시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을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소개했다. 이러한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미사 경본의 성체 축성 기도문에서 따온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라는 김 추기경의 사목표어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1968년 5월 29일, 제12대 서울대교구장 취임 미사 강론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의 소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우며, 또 그것이 교회를 위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때에 교회가 천주

의 장막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생활로써 증거해 달라’고 하는 사회 요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 추기경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영혼이나 개인 윤리 또는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에만 국한되어 개인적인 일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교회도 세상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회 속에서 타자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추기경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김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한국교회는 확실히 내적 쇄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첫 미사(명동성당, 1994.4.24)

않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일 수는 있어도 이 사회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김 추기경은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밥’이란 표현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었다.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밥이 되는 일이다. 사람들이 재 밥이야 할 때, 먹혀주는 것이야말로 극진한 자기희생의 사랑의 끝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온전히 바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바쳐 모든 이에게 밥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 것이다. 실제로 향년 87세로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각막 기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사람, 김 추기경의 통장에 남아 있던 340만 원까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작은 김수환 운동’, 나눔의 기적을 위해

김수환 추기경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위기에서 가톨릭 사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준다. 김 추기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간 존중과 사랑이었고, 선종하기 직전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그 뒤 10년간 한국 사회는 그 유지를 잘 따랐을까. 김 추기경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충고했고, 무한경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 씀하셨는데 최근의 세월호 사건, 구의역 사건, 김용균 씨 사건까지 10년 동안 나아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늘날 더욱 팽배해진 물질만능주의는 일찍부터 김수환 추기경이 우려했던 일이다. 예전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없는 와중에도 서로 나누려는 인정과 베품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전적 상황이 훨씬 나아졌는데도 도리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갑질’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하

며 이는 어느덧 우리 안에 돈의 가치만 중시되는 가치관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젊은이들에게까지 이런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 이것은 1차적으로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크며 먼저 기성세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히려 본인이 강의와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학생들은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그 나눔의 불씨는 살아 있다. 오히려 교육을 포함한 지금의 모든 것들이 ‘기-승-전-물질적 성공’으로 그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젊은이들이 무한경쟁의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준다면 지금 소외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평신도들이 젊은이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랑과, 사랑의 전폭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김수환추기경연구소는 2010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년을 맞아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상을 보여준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사상, 영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가 삶의 지표로 제시한 감사·사랑·나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 사회에 내면화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김 추기경의 나눔 정신과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은 물론 학부모,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나아가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영성과 가치를 공유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김수환 추기경을 알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 그들에겐 아주 옛날 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그분의 가르침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절실히 필요하



◀ 가톨릭대에 설치된 김수환 추기경 부조

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뒤에는 대개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부모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자녀에 대한 그릇된 사랑 등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더불어 학부모와 시민 교육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의, 평화,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 활동들은 김 추기경이 평생 동안 강조했던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김수환추기경연구소에서는 인문 상담 집단 프로그램인 ‘생각 사이-다’와 ‘PEACE-LT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먼저 그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그들로부터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리더와 강사들은 학생들이 이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성숙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선생님이나 동료들조차 감동했다. 그 학생들에게 김 추기경의 얘기를 들려주면 자신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지금껏 잘 헤쳐 나가고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소에서는 요즘 ‘작은 김수환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지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작은 김수환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희생이 없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김 추기경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눔 정신의 기적인 셈이다.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세상 곳곳에 존재해 계시는 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떠나신 분. 그분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작은 김수환이 되어 그 기적의 나눔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바쁘고 힘든 지금의 순간이 다 은총이고 기쁨이지요”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고용삼 베네딕토 / 제주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고용삼 베네딕토 회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새로 문을 연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을 방문하려고 제주 신자들과 함께 상경했다고 했다. 제주 평신도들은 늘 일이 많고 바쁘다.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바다 건너 달려와야 하고, 집에 있더라도 제주는 이름난 관광지라서 사시사철 손님도 많다. 하지만 제주 평신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제주는 28개 본당에 레지오 마리아, 꾸르실료, 매리치 엔 카운터(ME), 성령묵상회 등 평신도 활동이 활발하다. 제주평협도 이들 본당과 단체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신도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존음을 쏙개어 성실하게 말씀하고 답해주신 고용삼 회장께 감사드린다.

❖ 제주평협이 40년을 맞았습니다. 평신도 활동이 뿌리내리기 쉽지 않았던 어려운 여건에서 40년을 이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천주교 역사는 1899년 4월 22일에 사제가 파견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축교안(辛丑教案, 이재수의 난)으로 신자들이 많은 희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 현대사에서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들, 4.3의 참극에 억울하게 희생된 도민들, 6.25 전쟁에 쓰러져간 분들이 한 둘이 아니지요. 이런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거름이 돼서 제주와 서귀포, 한림지역에서 신앙 공

동체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55년 골롬반회 신부님의 지도로 레지오 마리아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주 평신도 활동의 효시입니다. 차츰차츰 열매를 맺게 돼서 1977년 3월 21일 제주지목구가 제주교구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제주평협도 1979년 4월 29일 창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많은 봉사자들의 노력이 쌓여 4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만세동산에서 제주평협 40주년 축하행사 진행

❖ 40주년 행사를 제주 3.1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

난 조천만세동산에서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0주년 행사를 제주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전개된 만세동산에서 개최한 것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미사 도중 말씀의 전례를 끝내고 나서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100년 전 올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를, 바로 같은 장소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우렁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함께한 300여 명의 평신도들이 ‘김기량 길’을 걸었습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오다 순교하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복자의 생가 터를 돌아보고 순교성지로 개발될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현양비가 건립되어 있는 종점까지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도이자 제주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원래 배를 타고 다니며 무역을 하던 본인에 풍랑을 만나 영국 배에 구조되어 홍콩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다 1857년 교리를 받고 다음해에 제주로 귀환해 가족과 사공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육지를 오가면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해오다 1866년 통영에서 잡혀 혹독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다 1867년 1월 51세에 순교 하셨습니다. 2014년 8월 16일 한국천주교 순교자 124위를 복자품에 올리게 되는데 김기량 펠릭스도 그중 한 분이 됩니다.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 제주교구 순례위원회가 도내에서 네 번째로 2014년에 ‘김기량 길’을 개설했는데 조천만세동산에서 함덕해수욕장, 김기량 순교 현양비까지 총 8.7km입니

다. 특히 지난 4월 행사 때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보니 발길 닿는 곳마다 초록빛 바다를 관망할 수 있었고 야생화들이 지천에 피었습니다. 강우일 교구장 주교님, 문창우 부교구장 주교님도 함께하셔서 참가자들이 다들 주교님들과 사진 찍기에도 바쁘지요. 지칠 줄도 모르고 모두가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 구성해 태풍에 대비

❖ 참 뜻깊은 행사를 치르셨군요. 하반기에는 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평협에서 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로는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연석회의, 본당 총회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평협 자문위원인 전직 회장들을 모시는 일, 제주교구 발전에 헌신해 오신 골롬반회 신부님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신학생들을 만나 격려해 드려야 하는 일도 있고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제주에는 타교구와는 다른 역할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태풍이 닥칠 때마다 성당 건물 피해가 빈발합니다. 모든 걸 외부에 맡기기보다 자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교구에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를, 본당에는 9명 내지 11명 정도씩 재해구호 봉사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 요원들에게 태풍대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재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했습니다. 이 조직도 제주평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재난에 대비해 미리 교육도 받고 하신다니 그 수고하시는 노력에 숙연해집니다. 제주평협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해나가고 계



▲ 지난 4월, 제주평협 40년을 기념하며 '김기량 길'을 도보순례하는 제주 평신도들. 발길 닿는 곳마다 초록빛 바다를 관망하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 제주평협 40주년 기념 김기량 길 도보순례에는 강우일 교구장 주교 (가운데)도 함께했다.

시는지요?

제주평협이 다른 교구에 비해 역사적으로는 일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평협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교구 내 총 28개 본당이 있는데요, 이 28개 본당 총회장단과 32개 단위 단체장이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친교활동과 교류증진의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평협에서 교구 내 4개 지구별 회장단 한 분 한 분을 평협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서 평협과 본당 공동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평협 임원 구성은 여성연합회 회장과 단원들을 많이 두고 있는 레지아 단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분과별로도 본당별로 적절하게 안배했습니다. 본당 사목활동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평협 임원을 맡고 있어서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제주평협이 올해부터 '평신도 영성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 모임'을 갖고 바티칸 공의회 문헌도 연구하며 평신도 영성 활성화에 힘쓰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릇 평협의 임원이라면 영성적인 모임을 통

해 자질도 함양할 뿐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키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막상 지난 3월부터 시작하고 보니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지난 3월 이후 4차에 걸쳐 모임을 가졌는데 갈수록 진지함이 더해간다고 할까요. 처음엔 소극적인 자세로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이 모임에 관심을 갖고 제시된 문창우 주교께서 특강을 자청하셨습니다. 소통과 열림, 친교의 영성을 강조하시면서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한다.”며 평협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교구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중심으로 우선 4대 현장에 대해 주어진 과제마다 조별로 연찬 후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가끔 주교님이나 전문 분야에 식견있는 신부님들을 모셔서 깊이 있는 모임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모임 횟수를 더 늘릴까 합니다.(웃음)

평신도들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 갖춰야

❖ 그렇군요. 지난해 평신도 회년을 보내면서 제주 평협도 부쩍 성장한 게 느껴집니다. 워크숍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평신도 회년을 맞아 교구장 사목방침에 따른 사도직 직분을 원활히 수행하고 평신도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는 주제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워크숍'을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제주평협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제주평협 상임위원, 각 본당 회장단과 사목회 임원, 교구 단위 단체장 등 120여 명이 1박2일간 진지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주 역사 속에서의 평신도 역할'을 주제로 문창우 주교님의 특강도 있었고,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장인 황태중 신부님께서 주재하는 분임 토의도 가지면서 충실한 워크숍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에게 보편사제적으로서의 역할을 키워 나가게 하는 역할이 우리 평협의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로서의 자기 사명을 알고 사회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그에 따른 매뉴얼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 평협의 활성화를 위해 마음을 다해 애써 오신 것으로 압니다. 3월에 회장에 연임되셨는데, 그동안 제주평협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역량이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맡고 나서 크게 내세울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주평협을 평신도 사도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모든 임원들이 적극성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웃음) 제주평협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가 격의 없는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제주평협이 앞장서서 본당 총회장들과 교구 단위 단체장들과 정보교류는 물론 상호 협력에 관한 활동을 자주 협의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요즘에는 봉사자들이 평신도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 제주평협은 지난해 평신도 회년을 맞아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평협의 첫 워크숍이었다.

❖ 회장님께서도 평협 활동을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뭐 평협 활동이란 것도 없습니다. 본당(제주 북본당)에서 사목회 총무와 총회장을 맡아 일했고, 2009년부터 2년간 평협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게 전부니까요. 그리고 교구 사목평의회 위원을 2013년부터 지금껏 연임해 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2017년 2월부터 평협 회장을 맡아 이제 3년째가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죠. 어떤 때는 사업만 하기로 했지 막상 일을 수행할 실행조직이 없어서 혼자서 모든 걸 기획부터 추진하고 집행까지 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일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기쁘이고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임에 그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 현직에 계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듯합니다.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신앙이란 것을 모르고 분별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아내와 수녀가 된 제 딸이 1995년에 세례를 받더군요. 그러면서 제게도 신앙을 권유하게 되고, 3년이 지나 저

도 큰딸이랑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비신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성당에서 상을 치르게 되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그 친구가 성당 다니는 게 맞느냐?”고 문의가 많았던 걸 보면 제가 살면서 문제아였던 모양입니다.(웃음)

수녀가 된 딸의 기도 덕분에
‘발바닥 신자’ 면해

❖ 신앙이 그저 순탄하게만 다가오지 않잖아요. 고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수녀원에 입회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릴 듣고는 성당 다니는 것을 후회한다며 극력 반대했던 일이 떠올라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때가 딸이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이라 저는 딸이 좋은 직장 갖기를 바랐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수녀가 되겠다는 것은 현실도피라고 운운하며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살레시오 수녀회에 입회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 나자렛 집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며 어느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 신앙 또한 변변찮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 강우일 교구장 주교(가운데)가 평협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협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기껏 주일미사만 참례하다가 퇴직할 즈음이 되어서 뒤늦게 열심히 신자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수녀가 된 딸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저 ‘발바닥 신자’에 그쳤겠지요. 그래도 그 덕분에 퇴직하기 전부터 본당 사목회 총무도 맡고 교육이란 교육은 다 다니고, 본당 총회장 맡아 봉사하고 지금 평협 회장 일까지 하고 있으니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이고 열심히 신자라 불릴 만하지 않을까(웃음)

❖ 뒤늦게 뛰어들어 평협 활동이 회장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었군요.

우리 제주교구 자랑 좀 할까요. 제주교구가 신자수는 7만 8000명으로 다른 교구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인구 대비 11%를 웃돌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신교 신자수보다 많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자부심을 느끼고 선교활동에 앞장서는 평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저희 봉사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직장가 가정



▲ 평협 대표로 선서하는 고용삼 회장. 고 회장은 지역사회와 직장가 가정에서 각자가 자리한 위치에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평신도 사도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평신도 사도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평협 임원들은 ‘뽑힌 사람들’로서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역할과 활동을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저도 만 40년 직장생활 마치고 기업체 사장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퇴직하고 무료하게 지내고 있을 이 나이에 중책을 맡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바쁜 일들을 처리할 때는 사소한 불평도 합니다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ㄹ



▲ 평협 임원들의 다락방 공부 모임(좌). 영성적인 모임을 통해 자질 함양뿐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키워 나간다(우).



평신도가 된다 한국가톨릭학교장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송동림(레오) 신부 / 회장

이 땅에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 역시 교육을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여 1855년에 최초의 근대 교육의 문을 열었으니, 벌써 160년이 넘었습니다.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공헌해 온 가톨릭학교는 오늘도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선포하고 따르는 인생관을 확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원들은 교육자의 사표(師表)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 교육자의 전인적 인격 형성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이자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장인 송동림(레오) 신부가 그동안의 활동과 계획 등을 들려주면서 부탁의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 ‘한국가톨릭학교장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60년이나 되었습니다. 학교장회의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본회 명칭은 ‘한국가톨릭학교장회’이지만 처음에는 ‘한국가톨릭중등학교장회’라는 이름으로 1959년 5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였네요. 가톨릭교회 공식 단체로 인준을 받은 것은 1988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였습니다. ‘한국가톨릭학교장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1998년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경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장 위주 단체가 아닌 초등학교까지 아우르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설립 목적은 가톨릭교회 교

육 이념에 입각하여 회원 학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공동 이익의 옹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가톨릭학교장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13개 교구, 23개 법인에 소속된 79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소속된 학교는 79개이지만 공식 회원은 겸임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셔서 72명입니다.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대표담당사제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을 대표



▲ 2019년 5월 27일 교장단 연수 중 미사 봉헌 및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최된 세미나 기념

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본회의 주요 사안들은 매년 5월 전후에 실시되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이때 교장 연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 한국가톨릭학교장회에서 평소에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종교 교육에 관한 사안을 공유하고, 종교 교과서 편찬에 관여합니다. 또 종교 교사 연수와 가톨릭학교 고등부 학생대회를 지원하기도 하죠. 본회는 매년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10만 원씩의 회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회원이 소속된 각 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본회의 정체성을 잘 실천한 1명의 학생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포상을 하고, 가톨릭교회 관련 교사 연수에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정기총회 기간인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 세미나에 회원들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 하고, 특히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 학교의 종교 교육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합니다.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회장 임기 2년을 마치고, 올해 5월 정기총회에서 연임되었습니다. 지난 2년 활동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맞게 회칙을 개정하여 좀 더 원활한 조직이 된 점, 두 번째는 최근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선입견이 있어서,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작년에 가톨릭 학교법인의 건의 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지요. 특별히 지난 지방 선거 때 질의서를 준비하여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가톨릭교회 학교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설문을 실시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저희 가톨릭학교 경영의 어려운 입장을 의식하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 끝난 큰 행사나 조만간 치를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인천교구 법인 사무국의 협조로 인천교구청과 갑곶 영성 센터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생태



▲ 2019년 5월 28일 인천 강화 성당 순례



▲ 2018년 5월 29일 교장단 연수 중 전주교구 천호성지 순례



▲ 2019년 5월 29일 인천 박문여자고등학교 방문

교육의 중심인 가톨릭학교'라는 주제의 세미나, 회원 학교 방문 등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생태계 파괴 현상과 관련하여 교황님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학교 현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나눔이 있었는데, 회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경영의

모범 사례를 살폈고, 기간 내내 가톨릭교회 학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나눔과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논의가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있을 임시 교장 연수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근 흔들리는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육 현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장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마다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교류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까지는 본회 차원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학교를 비롯해 회원 학교별로 일본·중국·미국·호주·대만·필리핀 등의 학교와 국제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교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 각 회원들의 학교 경영에 대한 비전, 교육 과정, 성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 교회 및 가톨릭학교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 한국가톨릭학교장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한국가톨릭학교 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의 진보와 확대에 기여하고,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의 가톨릭교회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전인교육, 종교교육, 인성교육, 생명존중교육, 평화와 정의교육, 봉사교육, 다문화교육, 환경보전교육 등)이 여기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 정기총회 때마다 나눠주는 자료에 가톨릭학교의 소명을 담은 이 헌장도 함께 배부하여 소속 회원들이 그것을 잘 의식하면서 학교를 경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가



▲ 2018년 5월 30일 제60차 정기총회 기념

톨릭학교가 나아가갈 방향성이 각 학교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톨릭학교장회 소속 회원들은 이 헌장을 배경으로 가톨릭학교 교육을 통해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공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바탕으로 인생관을 확립하도록 돕고,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며, 사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익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 맞추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 평협 회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사립학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 및 관할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은 국공립학교 차원의 공공성을 더 강조하고 사립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많이 약화된 게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가톨릭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톨릭학교가 시작될 당시 학교마다 설립 취지, 건학 이념이 있는데 현재는 종교 교육을 비롯해서 가톨릭학교의 정체

성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는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와 연대하여 정부 및 관할 교육청에 가톨릭학교의 정체성 강화와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힘이 미약합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평신도들과 평협 회원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가톨릭 사립학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등한 재정과 행정 지원, 관할 교육청과 사립학교의 상호 협치에 의한 수평적 관계 형성, 종교 학교(가톨릭학교)에 대한 교육 과정의 특수성을 교육 관계자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주위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복음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각 교구의 학교 관계자, 선생님, 학생들에게도 관심 가져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는 하느님 안에서 이 시대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왔듯, 그 역사의 뒤를 이어 가톨릭교회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회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정종호

글·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 이기경의 『벽위편』. 여기에 “죄인 정종호는 예수를 받들어 모시며 감히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판결문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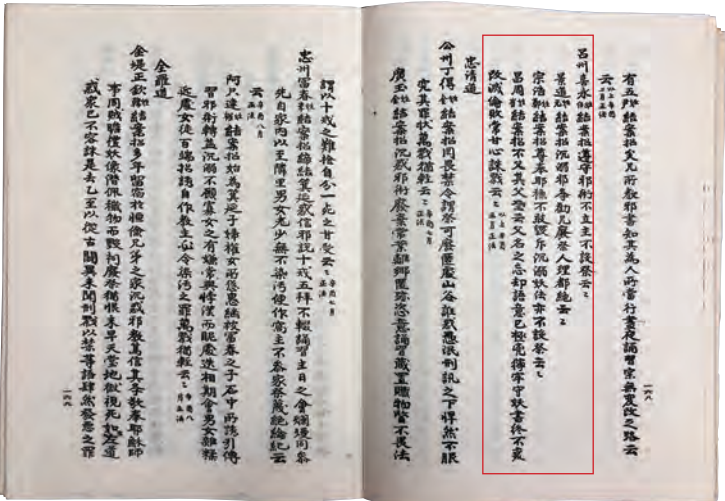
2017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집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의 모범입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게재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에 『희락경』 외우던 정종호

‘하느님의 종’ 정종호(鄭宗浩, 1751?~1801)의 세례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여주 고을 출신이었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진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입교 후, 그의 신앙생활을 본 가족들이 모두 그를 따라 열심히, 또 변함없이 신앙을 실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801년 봄, 정종호는 원경도, 최창주, 이증배와 함께 감사 앞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증거했다. 그곳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본래 살던 곳으로 옮겨진 후 참수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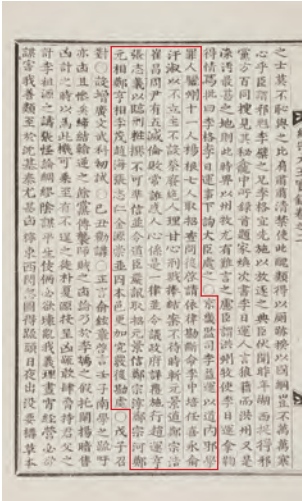
다블뤼 주교는 그의 기록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 “1801년 음력 3월 원경도 요한, 이증배 마르티노 그리고 다른 3명의 교우가 부활절 축일을 보내기 위해 그(정종호)의 집으로 왔다. 그는 그 교우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이 여느 때처럼 함께 기도를 바치고 성경 읽기를 마치자 느닷없이 포교들이 들이닥쳐 모두를 잡아갔다. 정 씨와 앞서 이름을 낸 두 교우는 관장 앞에서 똑같은 문초와 형벌을 받았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천주교인으로 죽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여 1801년



▲ 『사학징의』는 1801년 신유박해 때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천주교 신자들의 진술 내용과 판결문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는 각 도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 명부가 실려 있으며, 정종호의 이름과 사형 선고문도 포함되어 있다.

음력 3월 13일 여주읍에서 함께 참수되었다. 당시 정 씨의 나이는 50세였다.”라고 적었다.

안타깝게도 정종호의 믿음살이가 어땠으며 체포와 순교 당시의 정황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함께 잡혀 들어간 다른 교우들의 기록을 통해 그 정황을 알 수 있다. 교회 측 기록 가운데 황사영이 쓴 『백서』와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비망기』 및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이 특히 중요한 자료이다. 교우들은 1800년 부활 대축일 때 개를 잡고 술을 빚어 한 마을 교우들과 함께 길가(산골의 작은 길)에 모여 앉아 큰 소리로 『희락경』(喜樂經, 지금의 부활 삼종기도)을 외우면서 바가지와 술통을 두드려 장단을 맞추며 온종일 흥겹게 지냈다. 하지만 교형자매들이 함께 모여 부활 삼종경을 외우는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원수처럼 지내는 한 가문의 고발로 정종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교우들이 잡혀가게 되었다. 교우들 중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여러 차례 독한 형벌을 겪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굳게 버텼으며 마침내 석방되지 않고 옥에



▲ 정종호를 신문한 경기 감사 이익운의 장계가 실린 『순조실록』

간히게 되었다. 옥에 갇힌 후의 행적은 『조선 순교자 비망기』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여주 감옥에는 원경도 요한과 이증배 마르티노, 정종호만이 남았고 거기에 최창주 마르첼리노와 조용삼 베드로 그리고 천주교인으로 취급된 비신자 임희영이 추가되었다. 감옥 안에서 그들은 심심풀이로 글짓기에 전념하였으며 기도를 바치고 외교인들에게 전교하며 입교를 권하는 데에 열중하였다. 1800년 음력 10월에 수감된 교우들이 감사 앞에 호출되었는데 감사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배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그러나 모든 시도가 쓸데없음을 본 감사는 그들의 다리를 연속으로 때리게 하고 각자에게 서명시킨 그들의 사형판결을 선고하고, 그들을 옥으로 돌려보냈다.”

『일성록』과 『순조실록』에 실려 있는 정종호의 기록

『일성록』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 정무 일지이다. 여기에는 경기 감사 이익운(李益運, 1748~1817)의 상소가 실려 있는데 거기서 정종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신이 조사하여 다스린 자들 중에서 이미 판결이 난 자는 이중배, 유한숙, 임희영 세 명의 죄수입니다. 이 밖에 더욱 못된 자들은 원경도, 정종호, 최창주, 주운형, 윤유오, 장지의 여섯 명으로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순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마찬가지로 감사 이익운이 경기도 여주와 양근에서 18명을 잡아들여 문초를 하여 조사한 뒤 법률에 따라 처단하도록 문서로 왕에게 요청한 장계(狀啓)이다.

“경기 감사 이익운이 도내의 사학 죄인(邪學罪人)으로 여주(驪州)에서 11인, 양근(楊根)에서 7인을 취조(取招)하고 사문(査問)한 후에 율(律)에 의거하여 감단(勘斷)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이에 이중배(李中培)·임희영(任喜永)·유한숙(俞汗淑)은 신주(神主)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여 사람의 윤리를 폐절(廢絶)하고 형륙(刑戮)도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긴 것으로 결안(結案)을 받아 부대시참(不待時斬)하도록 명하였다.

원경도(元景道)·정종호(鄭宗浩)·최창주(崔昌周)·윤유오(尹有五)는 윤리를 멸절(滅絶)시키고 상도(常道)를 패물(敗沒)시켜 인심을 현혹시켰으므로 일률(一律)에 관계되지만, 모두 의정부로 하여금 상세하게 복심(覆審)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여주와 양근의 옥에 갇혀 있

던 정종호와 다른 교우들은 같은 해 1월과 2월에 관장 앞으로 다시 호출되었다. 관장은 여러 차례 배교를 하라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마침내 형벌을 내렸다. 사형 판결문이 확증된 뒤 그는 의금부 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의금부에서 다시 해읍정법(該邑正法)에 따라 그가 살던 여주로 보내져 처형되었다. 해읍정법 또는海道정법(該道正法)으로 처형된 것이다. 이러한 처벌 방법은 본래 거주하던 곳으로 죄수를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주로 돌아온 그들이 천상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종호는 여주 관아의 문에서 남쪽으로 1리쯤 떨어진 큰길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수당했다. 그와 더불어 땅에서의 순교와 하늘에서의 영광된 월계관을 함께 쓴 교우들은 이중배, 원경도, 최창주, 임희영이었다. 

나의 신앙 선조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백훈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결혼식

오래전 “하나의 종교만을 알면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어느 종교학자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반목은 대개 종교를 둘러싼 것들이었습니다.

17세기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연루되어 8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30년 전쟁’(1618~1648년)도 그러하였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1990년대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태나 1990년대 말의 코소보 전쟁도 모두 종교와 인종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늘날 유럽연합의 출발점이 된 파리조약(1952년) 서명 당시에도 사실은 천주교를 믿는 6개 국가(베네룩스 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만 참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애초에 자신들만의 별도 기구를 만들어 대립하다가 1970년대에 와서야 영국이 참여하였고, 그 밖의 나라들은 1990년대 초에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종교가 서양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구조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되기는 하였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직도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화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일랜드 출신 한 교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들려준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북아일랜드의 주택가를 거니



▲ 세 아들

노라면 100m 갈 때마다 복면을 쓴 괴한이 권총을 들이대고 “너는 천주교인가, 아니면 개신교인가?”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 괴한의 종교를 알 수 없는 터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인 셈입니다. 잠시 피를 내어, “나는 불교신자”라고 답한다면, 그 괴한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그러면, 개신교쪽 불교인가, 아니면 천주교쪽 불교인가?”라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보행자는 쉽게 위기를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서양인들에게는 종교가 ‘살고 죽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종교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기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느 산모퉁이를 돌아가다 보더라도 어김없이 누군가 쌓아놓은 작은 돌탑들이 보이는 것도 넓게는 자연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나 할까요? 저희 집안의 예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터인데요.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영향으로 개신교 교회에 가십니다. 반면 어머님께서는 천주교를 좋아하셨지만,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절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지금도 절에 가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4남매를 천주교 운영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모두 1학년 때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4남매는 신앙심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도 성당에서 하였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어머님께서 절에 가실 때에는 제가 모시고 가곤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저의 마음은 늘 평화로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저의 아내 집안을 보면 한때 수녀원에 계셨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수녀원을 나오셨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으신 장모님의 영향을 받아 아내와 그 형제들 모두가 천주교 신자이고, 아내의 외가에서는 신부님도 몇 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안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 아들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두 세례를 받고, 각각 크리스토퍼, 토마스 그리고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사랑 속에 성장해서 이미 큰애와 둘째는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자, 내심 천주교 신자 며느리를 바랐지만, 사람의 일은 욕심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모두 개신교 집안에서 자라서 지금도 저희 큰아이와 둘째는 아내를 존중하여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저의 아내는 개의치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며느리들이 성당에도 나가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장가를 가지 않은 막내가 회사에서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 친구 가족이 정말로 천주교 신앙심이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비밀스러운 바람대로 천주교 신자 며느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천주교의 온유함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복음 11장 28-30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서로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온화함을 닮아 갈 수 있는 저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서소문 역사공원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찾아서

글 · 정리
김병호 편집위원

지난 6월 20일(목)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협)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님들과 함께 찾았다. 이날 평협의 방문은 서소문 역사공원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을 평협 차원에서 잘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6월 1일 정식 개관한 후, 평일 500여 명, 주말 7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6월 20일 현재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직장인과 주민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의 방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어 연내 10만 명의 입장이 기대된다고 한다.



▲ 예수정 추기경이 집전한 개관 미사

마침 도착한 때가 11시 미사 시간이었어서 지하 2층 성 정하상 기념 경당에서 미사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지훈 안드레아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였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당에 많은 교우들이 찾아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낸 이 장소에서 미사를 드리자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미사를 마치니 박물관장이신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원종현 야고보 신부님이 기다리신다. 따뜻한 환영 인사에 이어 행정지원실 직원들을 소개받고 신부님의 안내로 순례가 시작되었다.



▲ 교황님 방한 제대와 원종현 박물관장 신부

서소문 역사공원

먼저 지상에 있는 순교자 현양탑을 찾았다. 서소문 밖 네거리는 조선 정부의 공식 처형지였다. 박해 시기 관변 자료 기록에 남아 있는 이곳 순교자는 98명이다. 이들 중 44위가 성인품에, 27위가 복자품에 올랐다. 단일 순교지에서 가장 많은 성인을 배출한 한국교회 최대 순교성지이다. 중죄인에게 씌우던 형구인 칼을 형상화한 탑의 양 옆에는 이곳에서 순교하신 성인 44분, 복자 27분과 순교자 27분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이곳은 17세기부터 칠패시장, 20세기 초에는 서소문 수산청과시장 등으로 상업의 중심지였다. 공개처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잣거리 한가운데에서 중죄인들과 반역 죄수들을 처형하였다. 지명의 유래가 되는 서소문과 성벽 등은 홍수와 일제의 개발로 흔적이 사라지고 1973년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서소문 고가차도와 염천교 철길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 더구나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 주차장, 노숙인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어 도심 속에 고립된 섬 같았던 공간이 서소문 역사공원(지상)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지하)으로 조성되었다. 온갖 소외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공간, 누구나 찾아와 휴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는 역사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이다.

공간이 갖는 역사적·영성적 의미 등을 원종현 신부님으로부터 들으며 다음으로 찾은 곳은 2014년 8월 16일 방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설치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놓은 야외 제대였다. 바로 그 옆에는 캐나다 출신의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 작가의 '노숙자 예수(Jesus the Homeless)'상이 설치돼 있다. 실물 크기의 이 청동상은 교황청 자선소 입구 벤치와 미국 성공회 노스캐롤라이나 교구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 설치되었다. 담요를 얼굴까지 폭 뒤집어 쓰고 몸을 깊게 웅크리고 있다. 담요 사이로 드러난 얼굴



▲ 순교자 현양탑



▲ 노숙자 예수상

의 표정에는 외로움과 굶주림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담요 밖으로 나온 차가운 맨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하다. 가난하고 집 없는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잠시 묵상을 한다.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려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바로 곁에는 '뚜께우물'이라는 사인보드가 서



▲ 두깨우물 안내판



▲ 박물관 입구 조형물



▲ 신유박해 조형물

있다. 망나니들이 칼의 피를 씻던 우물이라고 한다. 여러 지도를 겹쳐 상고한 결과 이곳이 바로 그 우물이 있던 곳으로 곧 처형장이었음을 고증하는 장소이다.

꽃과 나무로 조성된 산책로를 지나면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에 세워진 또 다른 조형물들을 볼 수 있다. 화강석에 청동 조각으로 된 작품이다. 누운 사람들의 군상이 사람 ‘人’자와 서소문의 ‘서’를 중첩 의미로 설치돼 있다. 반대편에는 작은 십자가들로 이뤄진 칼의 형상이 조각돼 있다. 이곳에서 참수형을 받은 순교자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돌벽에는 신유·기해·병인박해와 교황청 국제 순례지 선포를 기념해 1801·1839·1866, 2018이 새겨져 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현관을 따라 경사로를 내려가다 보면 조선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베드로가 남긴 ‘월락재천수상지진’(月落在水上池盡)이라고 새겨진 양각 부조를 만나게 된다. ‘달이 비록 서산에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 있음과 같이 남이 비록 나더러 배교했다고 말하더라도 내 신앙

은 천주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물이 비록 못 위로 치솟아도 그 못 속에 온전함과 같이 내 묵숨 앗아가도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이다.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증거한다.

지하 1층은 편의와 교육 영역이다. 이곳에는 안내 데스크와 성지 사무실이 있어 박물관 순례와 미사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평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미사, 주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미사가 있으며 매주 금요일 미사는 순교자 현양미사로 봉헌된다. 매주 월요일은 박물관 전체가 휴관으로 미사도 없다.

그리고 1만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다. 기념품 가게 겸 카페 자리는 아직은 비어 있다. 순교자들의 고통과 기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경순 바울라 작가의 7개의 브론즈 작품을 따라가면 다목적 교육시설인 ‘명레방’이다. 약 180석 규모로 강의나 세미나에 필요한 설비가 잘되어 있어서 교구와 평협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지하 2층은 영적 쉼터이다. 성 정하상 기념 경

당이 있다. 청동 부조로 된 회전문이 인상적이었다. 이곳 소성당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대의 미사가 봉헌되고 고해성사가 행해진다.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서 꼭 있어야 할 곳이다.

뮤지엄 갤러리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이 있다. 제1 전시관은 ‘조선 후기 사상의 흐름 속에서 발화한 시대 정신’을 주제로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고 충돌하는 사료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두 분의 자원봉사 해설사로 수고하시는 자매님을 만났다. 교우들을 비롯하여 많은 일반인 관람객들 특히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신다. 제2 전시관에서는 ‘서소문 밖 네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초점을 둔 사료들과 대형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한국 근현대 조각의 미의식’을 주제로 한 개관 기념 특별 기획전도 열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공간에 실험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현대 미술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하늘길에 설치된 <숨 쉬는 문/금민정> <발아/권성> 두 작품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순례하게 되면 잊지 말고 꼭 일람하시길 권한다.

지하 3층은 위무의 공간이다. 이곳의 어둡고 넓은 열린 공간은 ‘콘솔레이션 홀’(Consolation Hall)이라 부른다. 이 자리에서 순교한 평신도 성인 5위의 유해가 제대 밑에 안치되어 있다.

성녀 허계임 막달레나와 성녀 이정희 바르바라, 성녀 이영희 막달레나 세 모녀는 기해박해가 시작되자 포도청에 자수해 순교의 영광을 누린다. 성인 남종삼 세례자 요한은 고위관료로 국정에 관여했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신앙의 길을 택한다. 성인 최형 베드로는 여러 사제들의 복사로 활동하며 교회에 헌신하신 분이다. 두 분 성인은 병인박해 때 서소문에서 순교로 신앙을 증거



▲ 도서관



▲ 상설전시관



▲ 상설전시관 성물

하셨다.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콘솔레이션 홀’은 장엄 미사를 봉헌하는 성당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순교자들의 땅임을 상징해 모차르트의 ‘레퀴엠’(Requiem)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내부 네 개 면 전체를 영상 공간으로 꾸며 영상과 음악이 복합적으로 펼쳐진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입장한 주변의 직장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편하



▲ 역사박물관 입구



▲ 하늘 광장

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경건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진혼과 위무 그리고 새로운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듯한 영상들이 음악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 박물관장 원종현 야고보 신부님이 말씀하신 museum과 gallery(사원, 교회 등의 측량 위층의 복도로 이에 유래되어 실내 복판이 뚫려 있는 주위에 둘러친 복도 부분이다. 건물의 외부 바깥 벽체에 둘러친 회랑, 화랑, 미술품을 진열한 곳)에 music의 개념이 혼합된 공간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연주회도 생각하고 계시다니 기대가 된다.

어둠은 죽음이며 새로운 탄생이다. ‘콘솔레이션 홀’과 대비되는 빛의 공간이 바로 옆에 조성된 ‘하늘 광장’이다. 막힘없이 하늘과 통해 있다. 그곳은 순교자들이 하느님의 영광에 들어올려졌음을 보여주는 공간인데 빛은 영광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다. 비교적 넓고 사방을 둘러싼 벽과 열린 하늘로 해서 어떤 연주도 멋지게 공연될 것 같다.

기획 소강당(auditorium)도 있어서 개관 기념 특별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 68명과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니 이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여러모로 참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박물관의 여러 가지 기능과 조형성과 상징성 등을 건축학적으로 담고 있어 벌써 건축학도들에게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평협에서도 전국평신도협의회 연수와 성지순례 등등의 행사에 활용할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모든 것이 선조들이 쌓은 공덕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니 찬미가 절로 나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진 제공 : 김영훈 바오로, 김병호 위원)

참조 1 성지순례 단체 예약 신청(15인 이상)

- 1) 네이버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블로그 → 공지사항 → 단체 관람 안내 → 예약 신청 → 접수
- 2) 방문 1주일 전 예약 필수
- 3) 성지 소개, 미사, 전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구내 식당은 없으며 관내 취식을 금합니다.

참조 2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안내

- 1)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 2) 화~일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하며 수요일은 저녁 8시 30분까지 야간 개관합니다.
- 3) 주소 : 서울시 중구 칠패로 5
- 4) 안내 전화 : 02-3147-2401~2
- 5) 교통
지하철 : 2,5호선 충장로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1,4호선 서울역/ 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15분
버 스 : 경찰청/동북아역사재단 정류장 번호 13-037, 02-110
한국경제신문사 정류장 번호 02-108, 02-109
염천교(중림동 입구 방면) 정류장 번호 02-513

탐방

‘천주교 서울 순례길’ - 1코스 말씀의 길을 걷다



김영숙 리더아 / 한국평협 순교자현양위원장

2018년 9월 14일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공식 순례길로 지정되고 선포식을 가졌다.

전체 길이 44.1km로 이어지는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일치의 길’ 3개 코스를 평협 가족들이 함께 걸어보기로 했다.

첫 시작으로 1코스 ‘말씀의 길’ 8.6km를 걷기 위해 6월 8일(토) 오후 명동성당에 모였다. 손병선 회장과 위원들, 총 27명이 한국 천주교의 첫 페이지를 돌아보는 ‘말씀의 길’에서 선교사도 없이 학문으로 전해진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과 그 믿음으로 인해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던 순교자들과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이자, 한국

교회의 상징인 ‘명동성당’의 시작 이야기를 들으며 출발했다.

1784년, 명례방에 있던 김범우의 집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을사추조적발사건’으로 김범우가 유배되면서 해체되었고, 중현 언덕에 땅을 매입하면서 다시 교회와 인연을 맺고 한불수호조약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자 성당 건립을 시작하였다. 1898년 5월 29일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께 성당을 봉헌했고, 아홉 분의 순교자 유해를 모셨다. 수시로 드나들던 명동성당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범우의 집’ 터에 도착했다.

명례방을 알리는 표식은 없지만, 한국 최초의



▲ 가회동성당에서



▲ 좌포도청 앞에서

천주교 희생자 김범우의 집은 국가 음악 주관 기관인 장악원 앞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서 열렸던 신앙 집회가 김범우 토마스의 집으로 옮겨 기도와 교리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으나 '을사추조적발사건'이 일어나고 압송된 이들 중 양반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김범우만 옥에 가두었으며, 많은 매를 맞고 유배를 가면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수표교 인근의 '이벽의 집 터 (한국 천주교회 창립 터)'로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의미 있는 장소다. 17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한문 서학서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학문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갈증과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천주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벽은, 부친을 따라 북경에 가는 친구 이승훈에게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고 필요한 서적들을 가져오도록 부탁했다.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하고 많은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가져온 이승훈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고 첫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평신도에 의한 자발적인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 신자들이 점차 늘어나면

서 명례방 김범우의 집으로 옮겨 신앙 집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질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다음은 박해의 순간을 함께했던 자리 '좌포도청 터'다. 조선시대 한양 및 인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으나 천주교인들을 찾는 일이 좌·우포도청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조선에 들어온 첫 사제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신시키고 대신 최인길 마티아와 지황 사바, 윤유일 바오로가 포도청으로 끌려가 모진 매질로 순교한 '북산사건'을 시작으로 약 100여 년간 신자들이 온갖 고문과 형벌, 굶주림과 죽음에도 굳건한 신앙을 증거하며 피를 흘린 순교터이며 증거 터인 포도청이 위치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종로성당'으로 향해 간다.

포도청 순례지(좌·우포도청과 의금부, 형조, 전옥서)를 사목 관할 구역에 둔 종로성당을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지정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중요한 순교 터이자 최대의 신앙 증거 터가 신자들과 교회의 관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조금 길을 걸어 성밖으로 시신이 버려졌던 '광희문 성지'로 걸음을 옮긴다. 광희문은 서

울의 4대문 사이에 위치한 4소문 중 하나이며, 서소문과 함께 한양 도성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으로 사용되어 시구문으로도 불렸다.

기나긴 천주교 박해 시기 좌·우포도청과 형조, 전옥서 등에서 처형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시신이 광희문 밖으로 버려지고 또 묻힌 순교자들의 주검과 피를 통해 성화된 중요한 성지를 통과하여 동대문을 지나 성곽 길을 걸어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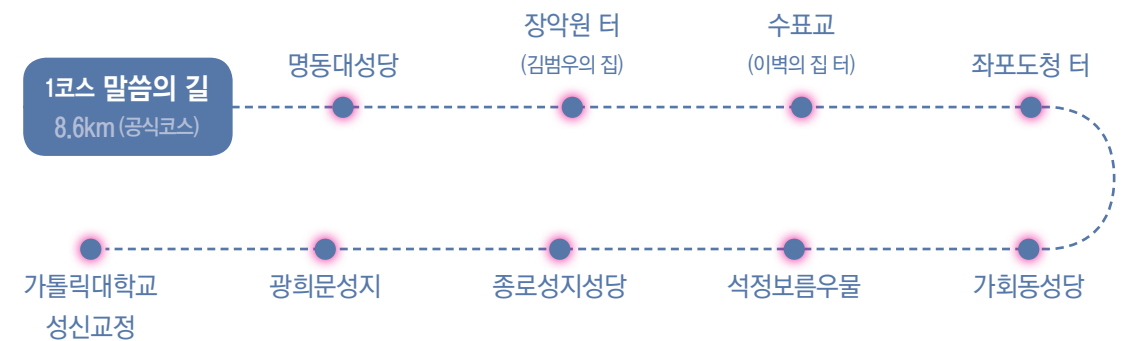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양 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성 김대건 신부와, 양 떼를 돌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많은 사제들의 못자리다. 성당에는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으며 참된 목자가 되려는 신학생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다.

다시 도심의 길을 걸어 '석정보름우물'로 걸어간다. 북촌 계동에 있는 석정보름우물은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801년 새남터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숨어 지내면서 선교활동을 할 당시 이 우물로 세례를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에 상수도 시설이 도입되기 전 북촌 주민들의 중요한 음수원

으로 15일은 맑고 15일은 흐려지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물맛이 좋기로 소문났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지난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늘 순례길의 마지막 도착지인 '가회동성당'으로 간다.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가회동은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첫 미사를 집전한 곳이자, 사제와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터전이며, 조선 왕실의 후손이 세례를 받은 역사적인 장소다. 가회동성당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랑채와 대청마루를 가진 한옥과 열린 공간의 서양식 성당이 어우러진 구조로 지어졌으며 1층에 한국 천주교회와 가회동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을 돌아보는 것으로 순례길 1코스를 끝냈다.

순례길 가운데 첫 구간으로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키우다가 순교의 길을 향해 가셨던 순교자들이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평화의 기도를 바친 후 순교자들을 기억하기로 마음을 다지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무상으로 주어진 은총,
어둔 밤 그리고 사랑을 통한 회복”

김원창 미카엘 / 평화방송여행사

인간을 뜻하는 human은 라틴어 humando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매장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그리고 ‘겸손(humilitatem)’이란 단어가 ‘매장’이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고 결코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 역시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많은 것-때로는 은총이라고 표현되는-들로 인해 이루어져 갑니다.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조차 매 순간 내가 의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자의식 밖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 호흡을 의식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어진 이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순례자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고 옮기는 다리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통통 부은 다리를 움켜쥐고 한숨을 내쉬고 후회를 하면서도, 목적지를 향한 순례자들의 마음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도, 수려한 풍광이나 아늑한 휴식처를 제쳐두고 때로는 황량하거나 오래되고 낡은 경당 한켠을 찾

아가는 성지순례의 궁극적 이유는 결국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끝은 내 무릎이 저절로 땅에 닿고 내 머리가 바닥을 향하게 되는 겸손의 체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더구나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고 비천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한 죽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피조물로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걷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칫 저 멀리 있다고만 느껴지고 환상으로만 간직했던 찬란히 빛나는 천국의 모습을 깨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가난하고 구체적인 하느님 나라”의 실재(實在, reality)를 지금 이곳에서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실재는 사실 멀리 있지도 않고 특별한 곳에서만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걸음을 옮기는 그 어떤 곳이든 하느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곳이든 가능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순



례자들의 특별한 여정에 동반자로 참여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보다 역설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꼭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가 순례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신앙을 가졌던 첫 시간에 이미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졌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달콤하고 한없이 기뻐던 감정의 유희를 느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좀 더 하느님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더 깊이 사랑해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유혹이 우리를 덮치고 날카롭고 거대한 의심의 불길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

리 스스로 만든 지옥과 같은 심연 속에서 깊은 밤을 보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존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죽음을 목전에 둔 골고타 언덕을 같이 오르고 싶을까요? 그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와 사랑에 빠지고 싶겠습니까?

위선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아주 당연하고 슬프게도 “당신을 따르기가 힘들며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라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 진실은 말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꼭 거처야 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Joannes a Cruce)께서 말하셨던 ‘깊고 어둔 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캄캄한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성인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수없이 그 시간을 재차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어둠에 있는 그 시간에



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냥 그 옆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더 슬프게 울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아픔마저도 기꺼이 수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Margaret Mary Alacoque)의 환시에서처럼 여전히 그분은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 봅니다.

아마도 성지순례의 필요성은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장소에서도 순례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의 그 깊은 밤을 겪었던 많은 이들의 시간을 특별히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 밤을 지나 새벽을 맞았던 이들을 통해 희망과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를 두고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 아시시 서편의 처형장이 천국의 언덕으로 변한 것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80명의 봉쇄 수도자들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시체로 가득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기쁘게 매장해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결국엔 80명 모두가 페스트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곳에서 '절망과 죽음의 그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



을 알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빌라에 들어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유대인 중 한 여인이 복음의 정신과 마리아의 순명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알게 됩니다. 아비뇽의 옛 교황청 안에서 인간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진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세대에든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어둔 밤을 우리 역시 지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리 자주 우리가 돌아선다 해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내 이웃을 따스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먼저 새벽을 맞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한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 역시 그분과 함께 나를 그리스도의 모

습으로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줍니다.

때로는 위대한 행위와 강력한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보증처럼 생각되어 지더라도 그리고 나의 삶이 하찮고 미약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도, 오직 내 주위의 작은 선함과 가느다란 희망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 14,20)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성 김대건과 최양업 신부 활동 경로
(중국 동북지역 편) - 제부

김창환 바르톨로메오 / 서울대학교 구 청구본당

중국의 성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중국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받아들였다. 중국의 상해나 마카오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소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 2회에 걸쳐 관련 성지순례기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이 순례 코스의 설명은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 오기까지 한국의 밀사와 사신들, 그리고 초기 외국 선교사 입국 경로이며 많은 신앙 선조들이 중국을 드나들던 길을 따라간다. 우리나라 북쪽 끝 의주를 지나 중국의 북경까지 산재한 성지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중국 양관쇄강(兩關鎖江)

소설 『차쿠의 아침』에 최양업 신부님이 뽕뽕 얼어붙은 압록강을 야음을 틈타 국경을 넘어 조

선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된다. 그 장면을 그린 곳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사실을, 동행한 『차쿠의 아침』 작가 청구교구 이태종(사도 요한) 신부께서 설명한다. 소설에 묘사된 대로 사신을 넘나드시며 강을 넘었던 최양업 사제의 애절한 심정과 죽음을 무릅쓰고 조력자로 위기 순간을 도와주었던 인물의 실존 여부를 떠나, 그 자리에 성모님과 하느님께서 함께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강 건너 북한 땅은 강폭이 그리 넓지 않으면서 한강의 난지도처럼 중간에 섬이 있어, 강이 얼어붙는 겨울에 하얀 광목을 뒤집어쓰면 옆에서도 사람 식별이 어렵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 수많은 밀사들과 선교사들이 넘나들던 의주 땅과 만주(중국) 땅이 구분되는 압록강 국경 지대이다. 당시 최양업, 김대건, 최방제 신학생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날 때에도 이곳을 거쳐 구련성, 봉황성 변문을 지나 심양, 마가자, 서만자,



▲ 국경 표시석 양관쇄강

북경, 태원을 거쳐 5000리 길을 지나서 마카오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836년 초,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 후동(后洞)의 모방 신부 댁에서 라틴어를 배우던 최양업과 김대건, 그리고 최방제(崔方濟,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해 12월 3일(음력 10월 25일)에 모방 신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신학생으로서 선서를 하였다. 조선 신학생들은 이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방제(劉方濟) 신부와 함께 조선 밀사(정하상 바오로, 조신철 가롤로, 이광렬 요한 등)들의 안내를 받아 중국의 국경 관문인 봉황성의 책문(柵門)으로 떠났다. 이에 앞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성 샤스탕(Chastan, 鄭牙各佻) 신부는 약속대로 12월 25일에 이미 책문에 도착하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의 신학생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책문에 도착한 것은 12월 28일이었다. 샤스탕 신부가 정해준 2명의 중국 안내원들을 따라 심양을 거쳐 적봉, 마가자, 서만자, 장가구를 지나 만리장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북경을 지나 중국 대륙을 횡단하기 시작하여 6개월이 넘는 대장정을 거쳐 1837년 6월 7일(음력 5월 5일) 목적지인 마카오에 도착했다. 서울을 떠난 지 7개월 4일 만으로 5000km가 훨씬 넘는 대장정이었다.

구련성(九連城)

단둥 시내를 기준으로 약 15km 북상하면 구련성(九連城) 터가 있다. 양관쇄강 표시석에서 옛길을 따라 직선거리로는 멀지 않은 곳이나 포장된 길을 따라 단동을 거쳐 구련성으로 간다. 명·청 때에는 국경을 건널 때 양국 사절이 꼭 거쳐야 하는 조선과의 통상 요지였다. 그곳에 남은 흔적이라고는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구멍가게 앞 모퉁이에 세워진 '구련성 고성지'라는 표시석 하나뿐이다. 표시석 옆 골목길을 따라 약 700~800m 쯤 가면 커브길 왼쪽 편, 낮은 돌 넘어 군부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넓은 공터가 전부 성터였다고 한



▲ 구련 성터 표시석

다. 구련성이 우리 천주교회사에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바로 조선을 빠져나온 밀사들과 김대건, 최방제, 최양업 세 소년도 바로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 주요 루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압록강을 건너 변문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성으로, 주로 하룻밤 쉬어가는 유숙지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 야영지로 알려진 성터이다.

봉황성(鳳凰城), 변문(邊門), 책문(柵門), 고려문(高麗門)

모방 신부에 의해 선발된 세 신학생은 1836년 12월 3일 귀국길에 오른 중국인 유방제 신부와 조선 밀사 교우 안내원들을 따라 의주 변문으로 향했다.

변문(邊門)은 조선의 국경도시인 평안북도 의



▲ 변문 표시석

주로부터 48km 떨어진 지점 구련성과 봉황성(鳳凰城)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자 별정소(別定所)가 있어 의주 관리들이 파견돼 상주하던 곳이었다. 옛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나 청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처음 만나는 관문이다. 목책을 둘러쳐서 경계를 삼았다고 해서 책문(柵門)이라고도 하고, 변경에 있는 문이라 해서 변문(邊門)이라고 부른다. 병자호란 때 잡혀간 고려인들이 살았다고 해서 고려문(高麗門)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서 1794년 12월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조선으로 잠입했다. 그리고 1836년 성 모방(Maubant, 羅伯多祿) 신부, 1837년 1월 성 샤스탕 신부, 그리고 그해 12월 성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가 방앗 차림으로 변장한 뒤 조선을 향했던 곳이다. 조선대목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브뤼기에르 주교도 이곳을 향하는 꿈을 늘 가슴에 간직했던 곳이며 김대건, 최방제, 최양업 세 소년도 바로 이곳을 통해 마카오로 간 장소이다.

1844년 12월 김대건이 부제품을 받은 직후 페레올(Ferréol, 高) 주교와 김대건 부제는 소팔가자를 떠나 봉황성 변문으로 향했다. 12월 말 변문에

도착한 그들은 1845년 1월 1일 이곳에 이미 와 있던 조선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페레올 주교는 포교지 조선에 들어간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조선 국경인 의주 변문 쪽 경비가 삼엄해 입국이 불가능해 할 수 없이 김대건 부제를 먼저 조선에 입국시키기로 했다. 신자들을 따라 의주 변문 근처에 온 김대건 부제는 어렵게 국경을 통과한 후 다시 신자들을 만나 평양을 거쳐 1월 15일 한양 돌우물골(石井洞)에 신자들이 마련해 놓은 집에 도착했다. 한양을 떠난 지 9년 만이었다. 당시 압록강을 건너 120리를 더 들어가야 중국의 국경선인 책문(柵門)이다. 압록강으로부터 책문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완충지대였다. 단동역에서 옛 책문 터인 일면산(一面山)역까지 기차길로 45km,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변문진(邊門鎭)에 속하며 단동으로부터 봉황성시(鳳凰城市)로 가는 국도 304번 도로, 두 번째 철길 건널목 옆에서 '변문진'의 표석을 볼 수 있다. 변문 마을은 지금도 국경 요충지인 데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시설인 무기고가 있다고 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일부 신자들은 이 표지석 하나가 성지냐고 반문한다. 잘 조성된 우리나라의 성지를 구경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저 보이는 것이 다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지를 바라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때, 비로소 성지순례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36년 모방 신부, 1837년 1월 샤스탕 신부, 그리고 그해 12월 앵베르 주교가 방앗 차림으로 변장한 뒤” 이곳을 넘었다. 체격이 큰 외국인이 거추장스런 상복에 방앗 차림이라면 얼마나 불편했을지? 그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검문소 옆 개천(개구멍)을 통해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외

국인 성직자가, 발각될까 염려되어 개구멍 통과라니? 마음의 눈으로 그 광경을 그려보고, 가슴으로 그분들의 당시 심정을 느껴보자.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이 누구이시길래?” 하는 물음이 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곳을 지나면 심양을 지나 적봉(赤峰)을 거치게 되는데 적봉 또한 내몽골 자치구의 직할시로, 적봉 주교좌성당은 1932년에 설립되었는데, 1949년 중국 공산정권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본당이 52개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였다.

마가자(馬架子): 브뤼기에르 주교가 선종한 곳

중국 교우촌인 마가자는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주교가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1835년 10월 20일에 병사한 곳으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조선 입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선교 거점이었다. 마가자는 적봉시에서 고속도로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이나 도로공사가 빈번하여 우회할 경우 세 시간을 돌아서 가야 하는 곳이다. 브뤼기에르 주교의 묘비는 마가자 천주당 정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성당을 감싸고 돌아가면 5분 거리에 바로 성직자 묘지에 있다.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인 브뤼기에르 주교는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로부터 1831년 조선교구 설정과 함께 초대 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후 중국 내륙을 거쳐 조선 땅으로 부임하던 중 1835년 병사했다. 조선 땅을 눈앞에 두고 마가자(馬架子, 지금의 적봉시 송산구 '동산'), 즉 펠리구(咧咧溝, Pie-li-Koou)라고 불리는 서부 달단(지금의 중국 내몽골 지역)의 한 교우 촌에서 눈을 감고 만다. 브뤼기에르 주교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된 성 모방 신부가 장례미사 후 고인의 유해를 마가자 현지에 안장했고, 묘



▲ 마가자 성당 입구

소 앞에 묘비를 세웠다. 이후 브뤼기에르 주교의 유해는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 용산 성직자 묘역에 이장됐으나, 묘비는 마가자 현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1960년대 후반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서양과 관련된 것들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기에르 주교의 묘비는 내몽골 자치구에서 선종(善終) 170년 만에 발견되었다. 묘비에는 ‘首鐸 蘇公之墓 道光十五年八月二十九日立(수탁 소공지묘 도광 십오년 팔월이십구일립)’이라고 쓰여 있는데, 수탁(首鐸)은 초대 조선교구장을, 소공지묘(蘇公之墓)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무덤’을 뜻한다. 모방 신부는 1835년 11월 서한에서 “주교님의 무덤 위에는 주교님의 한자 성(姓)인 소(蘇)자가 새겨진 묘비가 세워졌다.”고 적었다. 또한 도광(道光)은 청(淸)나라 선종의 연호로, 도광 15년은 1835년이다. 따라서 묘비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선종일인 1835년 음력 8월 29일(양력 10월 20일)에 묘비가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선종한 때와 일치한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세 소년이 조선을 빠져나와 마카오로 어떻게 갔을지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브뤼기에르 주교님이 조선으로 가셨던 길의 역방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마가자의 브뤼기에르(蘇) 주교 묘비



▲ 서만자 성당 및 주변 모습

서만자(西灣子, 원어명 [Sivang])

장가구에서 적봉까지 보통 9~1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도로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기약이 없다. 다음 동계 올림픽대회가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북경에서 멀지 않은 이곳에서 활강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배경으로 보이는 높은 산에 공사가 한창이다.

서만자는 중국 내몽고(內蒙古)에 있는 마을. 북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고을에는 일찍이 프랑스 계통의 라자리스트(Lazaristae)회가 진출하여 전교함으로써 주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조선에 입국하고자 하는 선교사와 조선 교우와의 연락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조선 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 입국을 시도하기에 앞서, 1834년 10월 이곳에서 모방 신부를 만난 후 조선으로 향하던 중 펠리쿠에서 선종하였고, 제2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앵베르 주교도 조선 입국에 앞서 1837년에 이곳에 들러 조선 교우와의 연락을 취한 뒤 조선에 입국하였으며, 페레올 신부도 1840년에 여러 차례 이곳에 들러, 앞서 이곳을 경유하여 조선에 입국한 앵베르 주교의 서신을 받은 바 있으며,

1842년에야 조선 교우들과의 연락이 이루어져 기해(己亥) 대박해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서만자 조선교구의 초대 교구장에서 3대 교구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성직자가 이곳에서 조선교회와 연락을 취한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곳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인 장가구를 거쳐 북경의 관문인 만리장성으로 가게 된다. 장가구 또한 교회사에 가끔 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나 지금은 심양이나 적봉처럼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도시로 특별히 순례할 만한 장소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평신도 잡지에서는 성지순례 원고를 모집합니다. 성지순례와 관련된 내용이면 형식과 분량에 상관없이 수시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clack-hongbo@daum.net이며 채택되면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보내실 때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원고 뒤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인터뷰

서울 미바회

인터뷰 : 서울 미바회 회장 이상분 아네스 대담 · 정리: 최태교 편집위원

❖ 미바회가 어떤 계기로 출범하게 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바회(MIVA, Missions Verkehrs Arbeitsgemeinschaft)는 '선교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단체'라는 의미의 독일어입니다. 무사고 운전과 탑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1km 주행할 때마다 1원씩' 후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선교 후원 단체입니다. 1927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미바 운동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픈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아픔이 전해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후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한 차량 보내기 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미바회는 1981년 12월, 프랑스 루르드에서 열린 '제42차 세계성체대회'에 참가한 대구대교구 이문희 대주교와 120명의 한국순례단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에 처음으로 광주대교구 진도본당에 오토바이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 미바회는 서울(1982년), 대구(1988년), 부산(1994년), 수원(2002년), 대전(2002년) 등 전국 5개 교구에 지부별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대 총재이셨던 이문희 대주교의 뒤를 이어 2009년 10월부터 제2대 총재로 대

전교구장 유흥식(라자로) 주교가 맡고 있습니다.

❖ 미바회의 조직과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한국 미바회의는 5개 지부, 4,522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총재 : 유흥식(라자로) 주교

서울 미바회 : 지도신부 서유석(사도 요한), 회원 550명

수원 미바회 : 지도신부 한성기(마티아), 회원 1,526명

대전 미바회 : 지도신부 한광석(마리 요셉), 회원 750명

대구 미바회 : 지도신부 송영민(아우구스티노), 회원 1,044명

부산 미바회 : 지도신부 김주현(도미니코), 회원 652명



▲ 2018년 12월 14일 제37차 한국 미바회 정기총회



▲ 2016년 세네갈(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 2017년 12월 잠비아(의정부교구 솔레지부)



▲ 2019년 2월 동티모르에 제공된 차량



▲ 2018년 12월 14일 제37차 한국 미바회 정기총회 미사 장면

전국 총회는 매년 10월 각 교구가 순번대로 개최하며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차량 전달식과 정기총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은 서울 미바회 주관으로 10월 24일 천호동성당에서 개최합니다.

서울 미바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1982년 광주 대교구 진도본당에 오토바이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외에 약 80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국내 차량 지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의 선교사들에게 주로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2016년에 세네갈(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2018년 잠비아(의정부 솔레지부), 2019년 2월에 동티모르(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6월에 파라과이(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 미바회 활동을 해 오시면서 기뻐했던 일과 안타까웠던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활동하던 고(故) 이태석 신부님에게도 2004년에 미바회 차량(구급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구급차가 고가여서 5대 교구 미바회에서 힘을 모아 보내드렸는데 신부님께서 외지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선교와 의료 봉사 등 다양하게 차를 잘 쓰고 있다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영상도 보내주시어 회원들은 가슴 뿌듯했었습니다.

그때 보내주신 영상 일부가 영화에도 삽입되어 돌아가신 후 그 영화를 보며 회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지가 많은데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항상 기도하며 도움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미바회 활동에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또 참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행 거리를 1년에 2만~



▲ 롯데재단 후원 행사 참여



▲ 2019년 3월 목동성당 모금

3만km를 감안하여 개인당 월 3,000원부터 후원금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들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미바회 봉사자로 직접 활동에 참여하거나 회원 가입과 특별 나눔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미바회 홈페이지(www.miba.or.kr)에 있습니다.

❖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바회를 모르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 성당마다 미바회 창구가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하여 지구촌 방방곡곡에 선교 차량과 함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도움의 은총 속에서 변함없이 알리고 기도하면서 차량을 보낼 계획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주보성인과 나

루피노(Rufinus)



김형수 루피노 / 한국평협 대외협력위원장

소년 시절 나이 든 형이 있는 친구들이 저를 ‘형수님’ 하고 부르며 놀리곤 했습니다.

저의 주보성인을 소개하자면, 루피노는 움브리아주 페루자 아시시의 주교좌 성 루피노 두오모 대성당의 주교이십니다. 도시의 수호성인이었고, 5세기경 이 지방에 활발히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순교 후 코스타노성당에 묻히셨다가 다시 아시시 현 성당으로 옮겨졌고, 성인의 석관에는 엔디미온과 셀레네의 전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인에 비해 그분에 대한 기록을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성인에 대한 저의 자부심은, 12세기 프란치스코 성인과 클라라 성녀 두 분이 세례를 받은 성당의 주교이셨다는 교회 역사 기록입니다.



루피노 성인

저는 가족 친지들이 천주교와 연결이 되어있어 자연스레 성당을 다녔습니다. 친가는 황해도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집 바로 옆이 성당이고, 성당 사진을 몇 해 전 얻어 친지들에게 보여드리니 시대별로 그

때는 교회 종이 여기 있었다, 유치원이 여기였다, 신부님이 무서웠다 등 많은 추억의 얘기들을 하였고 항상 마무리 단계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외조부모님은 서울의 종로성당이 본당이었는데 이번에 교황청에서 공인된 순례길을 다니면서 종로성당이 순례길의 한 곳이라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 세례명 루피노는 친지들 가운데 베드로, 바오로 성인의 이름이 있어 중복을 피하고, 부르기 쉽고 그 시절에는 생일과 맞추려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의 은총에 비해 저는 관련된 준비에 미숙했습니다. 1983년 대부 김원 안드레아께서 설계하신 용산의 이촌동 성당에서 루피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례의 기쁨은 잠시, 저의 20대 후반은 세례 후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한 번 나가는 미사지만 의무감이 앞섰고, 결혼은 성당에서 해야 한다는 마음에 교리공부를 해야 하는 배우자에게 미안했고, 대인 관계에 가끔 속마음은 달라도 표현을 자제해 답답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은총이 작용한다는 마음은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변 형제자매님, 신부님이 “루피노” 하고 부르시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덕분에 유학 생활도 지인들보다는 큰 좌절과 어려움이 적었고, 혼인성사도 했고, 주거지의 변동으로 본당을 몇 번 옮겼지만 지금도 분에 넘치는 평협과 본



성당 내부

당 성체분배 봉사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몇 안 되는 루피노를 성인께서 수호해 주신 듯합니다.

아시시의 수호성인 루피노 주교와의 첫 만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중 35세부터 7년 반을 해외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운 좋게 스위스 취리히, 영국 런던에서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에 수많은 성당과 교회를 보면서도 제 성인이 계셨던 곳을 가지도, 가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니 참 무심했고, 한참 후 2017년 가을이 돼서야 가 보았습니다. 처음 아시시 도착 후 루피노 대성당 방문 시 감정을 꼭 적어보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아시시에는 성 프란치스코, 클라라,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3대 대성당이 있지만 주교좌 루피노 성당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성당에 들어가 안을 보니 정말 너무 조용하고 경건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제대 앞쪽으로 가면서 마주친 교황님 같은 모습의 루피노 성인을 보고 놀랐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세례 후 30여 년 만입니다. 정말 아시시를 수호하셨던 분 같았습니다.

안을 둘러보고 성당 밖을 보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 보수를 했지만 매우 단아했고 위치는 아시시의 성당 중 조금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잠시 루피노 대성당이 성인, 성녀 그리고 수도원, 수녀원의 많은 분들께서 자주 다녔고, 세례를 받은 은혜로운 성당이었구나 생각하며 그 모습을 머릿속



성당전경

에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미사를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지 편집장이 이 글을 쓸 기회를 주셨어도,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성인에 대해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인상과 성당 전경은 제가 이른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성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성인의 석관에 조각된 전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모가 수려한 소아시아 목동 엔디미온을 여신 셀레네가 좋아하여 제우스 신에게 영생을 부탁했으나 제우스 신은 엔디미온을 영원히 잠들게 하여 라트모스산에 묻었는데 셀레네가 매일 찾아갔다는 전설입니다. 루피노 성인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조각이 새겨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석관의 조각 전설에 따르면 성인이 매우 인간적이고 양들의 훌륭한 목자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인도 순교 시, 최초의 순교 성인 스테파노의 마지막 기도,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이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사도 7:59-60)라는 말씀을 하시고 순교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

현재의 저는 루피노 성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성인이 목자이실 때 집전하신 수많은 미사를 더 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스승의 리코더 소나타
- 무작정 빈으로 떠나

조진희 비오 / 수원교구 문호리 본당

1989년 6월 9일

두 달된 딸 아가페, 아내 린다와 함께 26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빈(Wien)의 공중에서 바라본 첫 인상은 도시 전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베토벤 모차르트가 활동하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가 태어나 맘껏 예술혼을 펼쳤던 곳, 도시 구석 곳곳이 음악가들 유적지로 뒤덮여 있는 곳이 빈이다. 하루에 평균 200회의 연주회가 열리는 곳, 빈 필하모니, 빈 오페라하우스,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의 흔이 서려 있는 곳,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빈 숲속, 라테츠키 동상, 자연사박물관, 예술사박물관, 원부른 궁전, 12~15세기에 걸쳐 건축된 성 스테판 성당, 무엇보다도 빈 국립음대가 있어서 설레었다.

한국에서의 일은 이미 아득한 저 기억 너머의 일처럼 느껴졌다.

유학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과는 달리, 단지 LP음반에 쓰여 있던 연주자 프로필이 빈 국립음대 교수라 찾아온 곳이 빈이다. 계획성 없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때는 나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리코더 교수를 찾아가 내 연주를 들려주고 제자로 받아 달라고 청한 일이었다. 게시판에 적힌 레슨실을 보고 찾아가 Hans Maria Kneihls 교수는 사진과 조금 달라 보였지만 살이 조금 찼나 생각했다. 교수님은 사람 좋

아 보이는 인상에 수염을 길렀고 덩치는 보기 좋게 커 보였으며 손가락이 가장 맘에 들었다. 나는 내 주변 사람 중에 나보다 굵은 손가락의 소유자를 못 만났는데 이날 그 기록이 깨졌다. 여하튼 교수의 인상은 맘에 들었으며 이날 손가락을 보면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했다. 잠시 느꼈던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리코더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내 연주를 들은 교수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시간을 뺏긴 데 대한 아무런 대가를 못 얻은 불만 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게다가 29세의 나이라면 준 대가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충고도 친절히 해주며 별 관심이 없음을 뚜렷하게 각인시켰다. 갑자기 유학을 반대하던 주변인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한국에는 리코더 연주가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 리코더 레슨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인 음악교사직은 사표를 냈으며 이미 수종의 돈도 상당 부분 써 버렸으니 그야말로 대책이 없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가 다시 바라본 교수의 인상은 몹시 험상궂어 보였고 남에 대한 배려에는 태어날 때부터 없어 보였다. 내 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설사 천사같이 보였어도 빨리 이 동양에서 온 이방인과의 만남을 끝내고 싶어 하는 표정을 눈치 없는 나도 읽었다. 같이 간 통역인에게 똑바로 내 애길 전하라고 하고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한국에는 리코더 선생이 단 한 명도 없으며 나는 리코더가 좋아 혼자 독학한 것이다. 나는 음악교사라는 좋은 직장을 버리고 한국의 첫 리코더 선생이 되고 싶어서 당신한테 왔다. 지금의 나를 평가하지 말고 레슨을 해보고 몇 달 후에 평가해 달라.”

내 말이 제법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교수는 수고를 했고 태도가 바뀌어 자신의 실기 조교인 Sylvie Hoeflinger에

게 레슨을 받아보라고 소개해 주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리코더 레슨은 비록 내가 고령(?)임에도 스핀지처럼 빠르게 빨아들었다. 한 달 후 교수가 불러서 갔을 때 교수는 놀라워했다. 향상 속도가 빠르다며 격려해 주었다. 가장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 내가 봐도 빠르게 향상되어 갔으며 다시 교수에게 보였을 때 이런 향상 속도라면 입학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아마 이때쯤이 LP에 있던 그 교수하고 이 분이 다른 분이란 걸 깨달았다.

Helmut Schaller 교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깊숙이 관련되어 온 분이다. 돌이켜보면 이 분은 빈에서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으며 동양에서 온 낯선 제자를 정성을 다해 지도하고 보살폈다. 잘못 찾아간 첫 만남부터가 꼬인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교수 앞에서 연주를 했을 때 실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를 하셨다.

이론과 청음 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당부하셨다.

단 세 달을 레슨 받았을 뿐인데 입학시험에 문제가 없다니 의구심이 들었지만 교만이 밀려왔다.

시험 날 의기양양하게 실기시험장에 들어섰지



▲ 출처: Discogs.com



▲ 춘천 국제고음악제 때 비올라 다감바 주자인 히라오 마사코 선생과 Helmut Schaller 교수님과 함께



▲ 조진희가 만든 악기를 시연하시는 모습

만 자신감은 금방 겸손으로 바뀌었다. 다른 수험생들이 나보다 월등히 잘하는 걸 바로 알게 된 것이다. 문제가 없었던 교수님의 말이 배신감과 함께 귓가에 맴돌았지만 기왕 떨어질 거 후회나 없이 하자는 맘으로 연주하고 모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친절했던 교수에게 예의상 작별인사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학생까지 연주를 마치자 교수는 내게 다가와 황홀한 메시지를 주었다.

“축하한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믿기 어려웠다. 분명 7명의 오스트리아 어린 학생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났기에 귀를 의심했다. 29세의 나이에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빈으로 온 보상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빈 유학생들은 정신없이 바빴다. 열망하던 빈 국립음대에 합격은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후원이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1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돈은 6개월 만에 바닥을 보였다. 10월이 되자 중국 집에서 배달 기사를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

툰 독일어로 면접을 했다. 운전면허만 있고 운전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5년간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양심이 준엄하게 꾸짖었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커다란 트럭에 쌀 야채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식자재를 가득 싣고 빈 곳곳의 300여 개 중국 식당 중 150군데에 식자재를 배달하는 일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핸들을 잡은 손은 후들후들 떨렸고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목적지를 찾을 때마다 절망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운전도 못 하고 길도 몰랐으며 독일어도 서툴렀던 것이다. 전차길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전차 정적에 놀라기도 하고 배웠던 것과는 다른 후진기어 시스템에 몇십 분을 스틱과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예상보다 항상 너무 늦게 나타나는 내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미심쩍을 때는 같이 다니기도 했다. 사장이 옆에 타기라도 하면 내 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일제히 땀이 분출되는 느낌이 들었다. 사장은 중국인이었는데 나와 동행할 때는 돈이 아까워 자신도 점심을 안 먹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대화만 하면서 하루 종일 동행할 때가 많았는데 사장과 동행하는 날은 으레 굶는

날이었다. 정말 괴로운 동행이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못 이루는 일이 없다는 걸 이때 알았다. 몸은 고되고 스트레스는 일상이 되었지만 음악공부를 하는 것만큼은 행복했다. 나는 행복거리가 그나마 있었다. 학교에 가서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배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을 접할 수 있으며 연습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오로지 나 하나만 믿고 말도 안 통하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돈 거의 안 들이고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뿐이었다. 마트에서도 물건 사기가 녹록지 않았으며 값싸고 괜찮은 식품을 사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웃 거렸다. 한번은 집사람이 너무 싼 소시지를 샀다고 좋아서 상기된 얼굴로 왔는데 애완동물용 식품이었다. 독일어를 모를 때니….

연습을 하면서 때때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나 하나의 공부를 위해 가족을 고생시킨다는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친 날이 여러 날이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이사하는 일이었다. 나는 어린 학생들의 이사를 자주 도왔는데 연락이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유학생 거의가 내가 무료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남을 돕기만 한 건 아니었고 은인이 더 많았다. 교민 중 어떤 분은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내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송금해 주는 분이 계셨다. 한국에서, 빈에서 너무 많은 은인들의 도움이 있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학교생활은 공부에 목말라 있는 내게 오아시스나 다름없었고 Helmut 교수와 나는 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교수는 나를 유럽인처럼

대하기보다 한국인같이 대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해주셨으며 눈치가 빨랐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나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때도 있었다. 한국적인 인간관계와 마음 씀씀이를 좋아했으며 가끔은 자신도 한국인처럼 행동했다. 한국적인 정서가 원래 잘 맞는 분인 것 같다. 레슨 때는 야단을 치거나 큰소리를 치지 않았다. 친절하고 편하게 해주었으며 내가 그의 수제자라는 착각이 종종 들게 해주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레슨을 즐겁게 해준다는 평이 한마디라도 있다면 순전히 교수 덕분이다. 요즘도 스승의 날이면 전화를 해서 한국에선 스승의 날이라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안부를 전하면 그렇게 반길 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나같이 매사에 계획성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 교수를 만나게 해주신 건 분명 주님의 섭리다. 이분을 빼고 내 인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작년 스승의 날 즈음에 교수와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30년 가까이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 그때 형편없이 부족했던 나를 선택했던 이유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아시안에게 잘 못 느꼈던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보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 내 어깨에 올리신 팔이 떨린다. 가슴이 먹먹하다.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셔야 할텐데….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홍성민 지음 / 바오로딸 / 128×188 / 304쪽 / 12,000원

중독 전문가인 홍성민 신부가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중독에 빠지기 쉬운 상황,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중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독적 상황도 제시하며, 이를 알아채고 여기서 빠져나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술, 마약, 도박, 스마트폰, 일, 종교 중독 등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중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 자칫 무겁게 흐를 수 있는 주제를 재치 있는 필치로 밝게 담아낸다. 1부 중독이란? 2부 우리는 왜 중독을 경험하는가? 3부 회복의 길 위에서 등 3부로 구성되어 있고, 회복자의 생생한 체험담과 중독이 의심되거나 중독 상태일 때 유형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독 관련 단체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나의 더 큰 바다

김홍석 지음 / 생활성서사 / 140×200 / 304쪽 / 15,000원

이 책은 지금 일본 오카야마현 츠야마 성당에 선교 사제로 나가 있는 김홍석 요나 신부가 2016년 1월부터 월간 『생활성서』에 연재해 온 ‘요나 신부의 서랍 속 이야기’를 묶어서 발간한 영성 에세이다. 요나 신부가 신학생, 군종 사제, 선교사 생활을 하며 겪은 33편의 에피소드는 『생활성서』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이었다. 한 사제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솔직하면서도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지만, 독자들을 선부르게 위로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숨기고픈 체험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한 사제의 용기가 읽는 이들의 마음에 저절로 힘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 책은 세상살이에 지칠 때, 자신이 믿는 신마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의 은총 배탈부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이 월간 『생활성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의 영적 감수성을 올려, 그 사연들이 담긴 독자 엽서들이 매달 편집실에 수북이 쌓였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시편 묵상과 기도

그레고리 J. 폴런 지음, 김수진 옮김 / 분도출판사 / 150×225 / 612쪽 / 25,000원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시편은 교회 전례의 한 기둥이다. 교회의 공적 일상 기도인 시간 전례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인 미사 전례에도 쓰인다. 또한 시편은 기도의 발판으로 여겨졌다. 시편에 담긴 표상과 주제, 동기는 기도자를 성찰로 이끌어 하느님께 응답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는 시편에 쓰인 비유적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충격을 받는다. 폭력과 적개심,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온갖 표현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체험을 묘사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히브리 시문학의 독특한 문체와 수사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저자 그레고리 J. 폴런은 시편과 우리 사이에 영적 다리를 놓는다. 성경과 시편 번역에도 직접 참여한 저자가 시편이란 풍요로운 신앙 전통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로써 ‘성경 속 기도서’인 시편을 ‘내 삶의 기도서’로 삼게 한다. 저자는 말한다. “매일같이 시편을 영감과 기도의 원천으로 삼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릴 적 배우셨던 그 기도를 바치는 셈이 된다.”

조용한 게 좋아

널 기유메트 지음, 김성현·박은미·정성호 옮김 / 성바오로 / 148×210 / 224쪽 / 15,000원

널 기유메트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조용한 게 좋아’는 한 번 잡으면 카톡이 아무리 불러대도 인터넷 뉴스가 현란하게 속살거려도 깊고도 재미난 이야기에 취해 눈을 돌릴 수 없게 하는 마력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궁금해지면서 시시콜콜한 것도 알고 싶어진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어졌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기 바란다.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얼 좋아하시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연옥 생활은 어떤지, 왜 카를 마르크스는 마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으며, 무신론자와 개신교 신자 그리고 스님은 곧바로 천국행인데 어째서 생애 대부분을 바티칸 교황청에서 보낸 추기경은 연옥에 머물라고 천사가 가로막는지를 신랄하면서도 따뜻하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구마 사제

체사레 트루퀴·키아라 산토미에로 지음, 황정은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40×205 / 248쪽 / 13,000원

구마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의식이다. 또한 이 의식을 담당하는 구마 사제는 주교로부터 특별히 임명된 사제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내쫓으라는 임무를 받은 사제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마 사제들도 악마가 개입했다고 의심이 되는 사례 일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사적으로 조심하고 최대한 신중할 것’을 당부받는다. 그만큼 구마 의식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의 영향으로 악의 세계에 대한 ‘해로운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삶에 언제나 존재해 온 사탄과 사탄의 행적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바로 그 악마와 예수님이 싸우셨고 이미 그 악마를 이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려준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9년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7월 5~6일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70여 명의 교구평협 임원과 회원단체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 개막미사를 집전한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는 강론에서 “현대사회 속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는 하느님 진리 안에서 사는 곳인데 사상적 이념이 침투해 있고,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이념은 오로지 사랑임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미사 후 최현순 박사(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 박사는 특강에서 “직무의 구분 없이 세례 받은 모든 사

람이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 백성 간의 친교는 교회의 실존 방식이며, 이들의 공동합의성(Synodalitas)은 교회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모든 하느님 백성들 간의 상호 경청과 협력이 중요하다. 같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목자와 신자들은 모두가 서로를 향해 있는 존재로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우리의 공통된 소명인 거룩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언제나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민한 신앙감각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공동합의성 개념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였고, 한국교회 안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최 박사는 보편 공의회 정신인 공동합의성은 앞으로 모두가 더 많이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면서,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강을 마쳤다.

두 번째 날은 〈국제정세와 평화·통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지영 교수(통일교육원)는 강의에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을 언급하며, 미·중간의 강력한 세력전이 전개됨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은 이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두 세력의 원심력 밖에서 통일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문화 교류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함을 강조했다.

파견미사는 김혜종 신부(춘천교구 사목국장)가 집전했다. 김 신부는 “우리는 그동안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지만, 앞으로 맞이할 평신도 시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 교회됨인가’에 대한 성찰이다. 진정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살아 있는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영성 특강 ‘바보에게 길을 묻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는 지난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명동대성당 고스트홀에서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영성 특강 〈바보에게 길을 묻다〉를 진행했다.

특강에는 박승찬 교수(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장)와 박준양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가 강사로 나섰다. 박승찬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신앙〉, 〈정의와 평화〉, 〈사랑과 나눔〉을 주제로 3회에 걸쳐 강의를 했다. 박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의 삶의 정신은 정의와 평화, 사랑의 실현으로 요약된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작은 김수환 운동’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는 작은 김수환 운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실한 목표를 세우자.”라고 말했다.

마지막 특강에서 박준양 신부는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 대하여 강의했다. 박 신부는 “성덕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제, 수도자, 봉헌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각자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내고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대의 우리가 성덕의 소명을 실현하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성덕을 쌓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산상수훈, 특히 행복선언을 실천하며 소명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김수환 추기경의 성덕의 삶과 신앙을 언급하며, 비슷한 삶의 모습을 지닌 두 분을 이 시대의 멘토로 삼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웠다.

이번 4회의 특강 동안 연 인원 1,0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성향을 이뤘다. 종교를 초월하여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비신자들도 함께하여 의미를 더했다. 특강 참가비 전액은 미혼모 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춘천평협 임원 피정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종명, 담당사제 김혜종)는 지난 5월 8일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춘천평협 임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일 임원 피정을 가졌다.

이번 피정은 춘천교구의 평신도 대표기구인 평협에

서 우리 교구의 자랑스러운 평신도 신앙선조에 대한 이해와 추념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가톨릭회관 관장 신호철 신부는 '춘천교구 신앙의 선조들'이라는 주제로 자랑스러운 평신도 6인의 신앙생활을 강의하면서, "평협 임원부터 우리 선조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아 그분들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명도학당 종강식



춘천평협은 6월 10일 평신도 신앙의 못자리인 명도학당 1학기 종강식을 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명도학당은 수원교구 전삼용 신부의 '가톨릭교회와 구원'을 주제로 12주 동안 진행되었고 14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했다.

전삼용 신부는 '구원과 믿음', '본성의 변화', '성사', '본성 변화의 장애 자아'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본성의 변화에 장애가 되는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물며 성사생활로 힘을 얻어 옛 본성인 죄(자아)와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새로 태어남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의했다.

• 사목회장과 교구 임원 도보순례

춘천평협은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구별 본당과 일치와 연대'를 위해 지구별로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평협 임원이 함께하는 도보순례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춘천·남춘천지구 사목회장과 평협 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춘천의 가톨릭 신앙 발

원지인 곰실 공소에서 출발, 엄주언 말딩 묘역까지 순례의 길 걷기를 했다.



춘천지역에 신앙의 싹을 틔운 엄주언 말딩 묘소에 도착하여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엄 말딩의 생애와 고별사를 낭독하고 위령기도를 바치면서 엄주언의 신앙을 이어받아 복음전파에 힘써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최기산 주교 3주기 추모미사



지난 5월 30일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사제 이용권, 회장 김동빈, 이하 인천평협) 주관으로 백석 하늘의 문 성직자 묘원에서 최기산 주교 선종 3주기 추모미사를 진행했다.

400여 명의 신자들과 사제단이 함께한 이 미사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강론에서 정 주교는 "오늘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 선종 3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하면서, 최 주교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전하고자 하셨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미사에는 일본 가고시마 교구의 나카노 히로아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와 가고시마 교구의 한인 신부들이 참석하여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 제4회 인천교구 성체현양대회



인천교구 제4회 성체현양대회 및 성체거동이 지난 6월 6일 인천평협 주관으로 중·동구지구 및 부천1지구 교구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성체성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1부 행사는 성체조배, 2부는 성체현양대회 기념미사가 진행됐다. 미사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의 주례로 지구 사제들이 함께 집전했다. 정 주교는 강론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체성사로 체험할 수 있다.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고, 나의 삶에 일치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흠숭의 마음을 담아 성체조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3부에서는 성체거동과 강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함께 봉헌했다. 교황청 대사 장인남 대주교는 "교회의 무한한 성장을 이루어낸 인천교구와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전파하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성체거동 및 성체강복이 진행됐다.

• 교구장과 평협 임원들의 만남



지난 6월 20일 인천평협은 교구 발전을 위하여 교구장의 사목방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구 내 평신도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그 시책을 시행하고자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교구청 소속 사제, 평협 임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사제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정찬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태백지구 신앙대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이하 원주평협)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태백지구 평협은 지난 6월

23일 장성 초등학교에서 지구 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앙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태백지구 사제 및 수도자를 포함해 4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하여 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함께 봉헌했다. 모두가 음식을 나누고 문화 행사를 관람하는 등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함께한 교구장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며, 미래 교회에서 적극적인 평신도 역할을 당부했다.

● 원주교구 옛 순례길 복원사업

원주평협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풍수원 성당에서 시작하여 배론 성지에 이르는 70km 옛 순례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수원 성당은 올해 옛 공소 길을 복원하여 금대 공소에서 오산골 공소를 지나 풍수원 성당에 도착하는 11km 도보 순례길을 완성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출범



6월 29일 주교좌의정부성당에서 교구장 이기현 주교 및 이재화 선교사목국장 외 사제단과 전체 19개 단체 대표자 및 지구 내 63개 본당 사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의정부평협)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초대회장으로는 김용무 미카엘(전 양주2동본당 사목회장)이, 부회장단으로는 장현열 몰루아(호원동본당, 전



사목평의회장), 한효수 바오로(화정동본당, 레지아 단장), 두현자 율리아나(성령새싹봉사회장)이 추대되었다.

의정부평협은 기획, 교육·연구, 사회복음화, 여성, 홍보·대외협력의 5개 분과를 두고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및 정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그 세부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이기현 주교의 집전으로 교구 평협 창립 축하미사가 거행되었다. 이날은 이기현 주교의 영명축일과 겹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출범이라 미사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회 하느님 말씀 축제 개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이하 교구평협)와 선교사목국은 지난 6월 1일 내덕동주교좌성당에서 제3회 하느님 말씀 축제를 실시했다.

이번 축제는 “비유로 알려주시는 하느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는 문제를 풀며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의 ‘비유로 알려주시는 예수님 사랑’이, 2부에는 토너먼트로 이루어진 가족과 함께 하는 성경 보드게임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최양업 신부님 알리기, 캘리그라피 및 묵주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선교사목국장 서철 신부는 이날 파견미사에서 “모든 신자들은 사랑의 하느님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님 승천이 예수님,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오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심할 것을 독려했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박창균, 회장 한일문)는 지난 5월 17일 교구청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와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신임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이주사목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다. 이주사목담당 김종원 신부는 이주사목에 관한 교황령 「이민 가정(Exsul Familia)」에 대해 강의했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 이하 안동평협)는 지난 6월 22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건으로 1) 사목임원 단체장 하계 연수 준비 2) 순교자 현양 성가 발표회 준비 3) 교구 친교의 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사목 임원 단체장 하계연수



안동평협은 지난 7월 5~6일 사목 임원 제 단체장 하계연수를 개최했다. 6개 지구 41개 본당 중 30개 본당, 25개 제 단체 중 4개 단체가 참여하여 지구 본당 간 소식들을 함께 나누었고, 정희완 신부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역대 회장들과의 만남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광주평협)는 5월 30일 베네치아 레스토랑에서 역대 회장 일곱 분을 모시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에는 역대 회장들을 초대하여 교구 현황과 평협의 추진 사업들을 설명하고 좋은 의견을 들으며 훈훈한 시간을 갖고 있다.

●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 수련회



광주평협은 6월 14~15일 소록도성당에서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과 담당사제, 수녀님, 사목국 직원 등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원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에서는 소록도2번지 성당에서 한센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치유의 길'을 걸으며 묵상의 시간도 가졌다. 이 치유의 길은 일제시대 소록도에서의 힘겨운 삶을 탈출하려는 한센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로, 한센인들을 동원하여 만든 길이다. 그 추운 겨울 한센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며 만든

길을 걸으며 "작은 상처는 큰 상처를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했다.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3기> 수료미사



광주평협은 역량 있는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는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3기>를 10주 동안 내실 있게 마치고 6월 17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수료미사를 봉헌했다.

아카데미는 Open Space '나는 평신도 리더인가?', 본당 공동체성 회복, 청소년 친화적 본당 이루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수료자들은 평신도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 등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갈증들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본당 사목협의회나 제 단체는 물론 많은 신자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 행사



순교자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교회의 토양이 되었던 전주교구에서는 평단협(회장 한병성, 지도 박성팔 총대리 신부) 주관으로 300여 명의 교구민들과 함께하는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6일 이루어진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는 한국 순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로 추앙받고 있는 동정부부 순교 복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의 거룩한 신앙과 사랑을 본받기 위한 '제19회 요안루갈다제'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도보순례 구간은 초남이 성지에서 치명자산 성지까지 22km이며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특별히 중간 쉼터 모퉁지공원에서 김정식 로제리오 형제를 초청하여 씬지공연을 했으며, 도착 후에는 치명자산 성지 장막성전에 모여 도보순례를 하면서 외운 십사처 기도문 암송자에게 시상했다.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길 위에서 참가자들은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기꺼운 순교로 기쁨의 영성을 살아간 순

교자들의 영적 유산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원 재난대비 교육 실시



태풍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길목에 위치한 제주에서는 태풍 피해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어느 교구에도 없는 28개 본당별 재해구호 봉사단을 9~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함께하고 있는 재해구호 연합회에서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전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금년에도 6월 13일 교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재난 관련 전문가인 제주특별자치도청 문경종 자연재난팀장을 모시고 태풍 및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별도의 교재와 생생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짐에 따라 수강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었으며, 재해 발생 시 대응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참례 및 성지 순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6월 25일 개최됨에 따라 제주평협에서는 1박 2일의 순례 계획을 마련했다. 평신도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대형버스 2대 인원인 선착순 90명을 모아 순례단을 구성하였다.



순례단은 첫째 날 한국역사박물관과 경복궁, 경회루 관람으로 일정을 소화하였고, 둘째 날은 온 국민이 갈망하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에 참여하여 2만여 명이 넘는 순례객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정진하였다. 또한 파티마 평화 성당, 최북단에 위치한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찾아 성체조배를 올리기도 하였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는 북녘땅을 바라보며 통일이 앞당겨지길 마음 모아 비는 등 짧은 면서 유익한 순례 여정을 마쳤다.

● 평협 3/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교구에서는 지난 7월 13일 가톨릭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3/4분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회의에서는 임원 영성 활동 차원에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부방 모임의 개선방향을 듣고, 평협 설립 40주년에 걸맞은 자료들도 집대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대를 공고히 하고, 원로 사제와 전직 평협 회장을 초청한 고연 청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가 9월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임원들의 역할들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제36차 전국 주간단 회의

꾸르실료 한국협의회(회장 박영찬) 전국 주간단 회의가 5월 18일 부산교구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실시됐다. 회의에는 전국 15개 교구 주간과 임원이 4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182호까지 발행된 꾸르실료의 계간지인 『울뜨레아』를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어 디지털화된 인쇄매체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183호의 시안을 본 주간단은 전원 찬성하며 발전된 울뜨레아지를 기대하게 되었다. 다음 제37차 전국 주간단 회의는 8월 17일 대전교구 실시될 예정이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6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13개 마리아 폴리 개최



한국 포콜라레운동은 6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규모의 13개 마리아폴리를 개최했다. 마리아폴리는 '마리아의 도시'를 뜻하며 말씀을 생활화한 경험담과 묵상, 다양한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지는 피정과 휴가를 겸한 포콜라레의 여름 집회이다.

예년에는 보통 7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마리아폴리를 한두 곳에서 총 3회 정도 열었는데, 올해는



전국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인원과 규모의 색다른 마리아폴리를 시도했다. 이 같은 시도는 4년 전에도 있었고, 전국 각지의 포콜라레 회원들이 거주지 인근의 '구역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마리아폴리를 준비하고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6월 6~8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아! 성령 그 모든 것'을 주제로 열린 마리아폴리는 4개 구역 공동체가 협력해 이루어졌다. 이 마리아폴리의 한 참가자는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2박 3일의 생활이었다."라며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도 향구하게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함께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2019년 중앙이사회 성지순례



지난 5월 18일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박호란)와 16명의 중앙 임원(9명)과 자문단(7명)은 강원도 횡

성군 풍수원 성당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지에 도착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협회 발전과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성지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하고 성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근교의 횡성호수를 방문하여 산책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지순례 모임에는 이소우, 최국미, 최의순, 전시자 전 회장과 노유자, 김정단, 김복자 전 부회장이 참석하여 더욱 풍성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며, 자문위원과 박호란 회장 이하 현 중앙이사는 함께 협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전국 가톨릭 영년스 영성캠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한 '2019년 전국 가톨릭 영년스 영성캠프'가 지난 6월 21일 서울 가회동 노틀담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피정은 가톨릭 신자인 1~3년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고요한 곳에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 바쁜 임상에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처음 시도되었다.

'예수, 내 영혼의 기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24명의 간호사가 참석하여 진솔한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는 여의도 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안중배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박호란 회장 이하 중앙이사가 파견미사에 함께하여 참석한 간호사들을 격려하였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에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양지수, 담당 사제 김용태)는 5월 17~18일 광주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한국레지오마리에기념관(전남 목포)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소속 레지오 마리에 단원과 봉사자 등 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레지오 마리에 피정을 개최하였다.

지역별 활동 보고, 찬미와 친교,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두 번의 강의와 광주대교구 이봉문 신부가 집전한 파견미사로 1박 2일 일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 레지오 마리에의 발상지인 목포 성지에서 개최되어 뜻깊었던 이번 피정을 통해 아직 레지오 마리에가 없는 선교회에 결성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19년 상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6월 25일(화) 울산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에서 상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교구 선교회의 임원과 봉사자 33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새로 선출된 대구·인천 선교회 회장의 인사와 내년에 실시될 전국 단위 행사의 주관 선교회 선정,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홍준기 신부가 집전한 미사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전국의 선교회를 방문하는 의미도 있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주관 선교회를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각 교구 선교회 임원들을 격려하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2019년 제3차 상임위원회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는 7월 5일 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여성연합회(위원회)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참석한 교구 활동사항을 서로 공유하였고,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각 교구 여성들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감사 추천을 위한 소개와 섭외 요청 조건도 논의하였다.

한가협 마지막 한 식구가 된 의정부교구 여성분과 위원회가 창단되며 교구 내 여성 신자들의 교회 내 역할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Editor's Letter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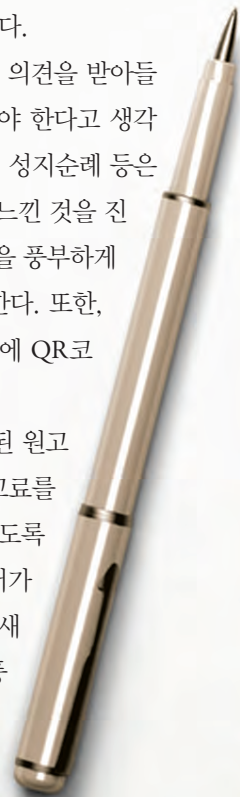
이번 호가 두 번째 작품이다. 처음에는 시간에 쫓겨서 앞뒤를 살펴볼 겨를이 없이 원고에 대한 의뢰와 수집, 편집 및 출간의 과정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진행하였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행사계획을 추가하는 정도로 변화가 거의 없게 제작한 첫 작품은 다행히도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정시에 발간이 가능하였다. 이번 호부터는 각 코너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집필진들을 선정하는 여유(?)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평신도 잡지를 위한 발전 방안을 고려하고 기획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만간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다수 제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편집장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단편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하는 편집위원들은 각자 직업이 있으면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계간이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각자 하나 이상의 칼럼을 맡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편집위원을 확대하여 평신도 잡지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방’과 ‘공유’라는 시대에 어울리도록 편집위원회도 개방하여 많은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고의 작성과 의뢰를 편집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잡지와 같이 독자들의 투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칼럼으로 연재되고 있는 나의 신앙 선조, 주보성인과 나, 성지순례 등은 일반 독자라도 충분히 투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톨릭의 현장에서 느낀 것을 진솔하게 기록한 에세이도 좋다고 생각한다. 독자의 참여는 평신도 잡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대에 맞게 간단한 유튜브나 AR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평신도 잡지에 QR코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clack-hongbo@daum.net으로 보내 주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원고가 채택되면 약소하나마 고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투고가 넘쳐나서 편집위원회가 비명을 지를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아니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의 주소로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밖에서 보는 시선은 신선하고 새로울 수가 있으므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매 호 100쪽이 넘는 풍성한 평신도 잡지를 발간하기를 바라고 있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9년 8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nmail.net
대전평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협	김현채	바오로	pwsave@naver.com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황윤희	효주아네스	oh-mn@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